

“성균色”, 인성을 말하다

2022학년도 제2학기	과목명: 성균 논어	요일/시간: 화 / 15:00~16:50
--------------	------------	------------------------

학부 학번: 글로벌리더학과 서의정	성 명	한글: 서의정 한자: 徐儀禎
담당교수: 윤민향		

주제: 지(智) - 학이사(學而思)-배움과 생각 사이

제목: 학(學)과 사(思)의 균형을 통해 '나'와 사회를 연결하기

주체적인 배움을 추구하게 된 계기

‘목적 없는 공부는 기억에 해가 될 뿐이며, 머리 속에 들어온 어떤 것도 간직하지 못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했던 말이다. 이 격언을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들었는데, 담임선생님께서 입시에 지친 반 친구들을 위해 수업시간에 직접 읽어 주셨다. 아무리 입시가 고단하고 자신의 목표와 멀어보여도 지금 고통스러운 시간을 건디게 하는 원동력, 즉 꿈을 잊지는 말라고 하셨던 기억이 난다. 사실 담임선생님께서 이 글을 읽어 주셨을 때, 나는 ‘한시가 바쁜 시험기간에 왜 진도는 안 나가고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저런 말씀을 하실까?’ 하고 주의 깊게 듣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수능을 보고 대학 합격 발표가 나왔다. 나는 새해에 성균관대 합격이라는 큰 선물을 받았고 코로나 입시세대에서 벗어나 누구보다 2021년을 행복하게 보내리라 생각했다. 부푼 기대를 안고 서울로 상경하여 기숙사에 입사했고 학교생활을 열심히 할 것이라 다짐했다. 그러나 코로나는 여전히 잠잠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학교를 나갔다가 안 나갔다가 하는 유동적인 상황에 적응해야 했다. 입학하고 몇 주가 지나고부터 코로나 대유행이 한차례 있었던 시점에, 문득 기숙사 침대에서 눈을 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왜 여겼지?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고향에 두고 등록금, 기숙사비 등 엄청난 기회비용을 들이면서까지 내가 왜 서울에 있어야 하는 거지?’ 학교에 나가 수업을 듣고, 동기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며 기분 전환할 시간이 있었더라면 이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작년에는 상황이 그러질 못했다. 그렇다보니 홀로 기숙사에서 생각에 잠겨 위의 질문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일상의 대부분이었다. 거듭되는 생각에 지쳐 부모님이나 고향에 있는 친구들과 연락하며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는 대부분이 ‘네가 아직 서울살이 적응 중이라 그런가봐. 조금 더 지내보면 괜찮아질거야.’라며 나를 위로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위로가 전혀 먹히지 않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있는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만 자꾸 들었다.

처음에는 본가에 자주 가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하게 시시때때로 바뀌는 수업 일정을 원망했고 나중에는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버려가면서까지 ‘내 인생의 1순위는 나니까’라는 생각

하나만 가지고 서울에 상경하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했던 스스로를 원망하게 되었다. 나를 미워하는 마음은 점점 커져 '내가 주변 사람들 곁에 없이 혼자 살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해? 내가 뭐라고?'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그 와중에 시험을 보고 과제를 내면서 고등학교 때와 달리 특별한 성적을 거두지 못한다고 느끼자 위의 생각들로 점점 더 스스로를 괴롭혔다. 결국 종강을 하고 고향에 돌아와서 부모님 앞에서 사춘기 때도 해본 적 없는 '학교에 다니기 싫다. 공부하기는 더더욱 싫다.'라는 말을 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부모님은 한번도 속 썩인 적 없이 시키지 않아도 자기 할 일 잘 해쳐나가던 딸이 이런 말을 하자 적잖이 놀라셨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쉬고 싶으면 쉬고,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하시며 휴학을 권유하셨다. 그렇게 나는 혼하지 않게 신입생이 된 해에 휴학을 하게 되었다.

휴학을 하고 집에서 놀기만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까워서 알바도 하고 사촌동생 국어 과외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뜻하지 않게 인생의 방향을 재설정하게 되는 계기를 만났다. 당시 EBS 교재에 기형도 시인의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시가 실렸었고 나는 수업을 위해 이 시를 꼼꼼히 읽어보고 분석해야 했다. 내 삶을 바꾼 것은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이다.

“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

나는 스스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고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착각해왔었다. 그러나 마지막 구절을 읽고는 내가 지금까지 사랑해왔던 게 '나 자신'을 뺀 나를 둘러싼 환경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자기 일을 척척 잘해내는 멋있는 사람처럼 비춰지길 원했고 그런 주변인의 평가에 기대어 살아왔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울에서 힘들었던 이유도 나를 긍정적으로 봐주는 내 주변인들이 없어 나를 잃어버린 상태였다는 것도 깨달았다.

시의 마지막 구절이 말하는 인생을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자 계속해서 나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나는 좋게 말하면 받아들이는 게 빠르고 나쁘게 말하면 주관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는 학습면에서도 그랬다. 나는 항상 '자아가 없는 공부'를 추구해왔다. 즉,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해왔다는 말이다. 출제자를 바라보며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올까? 어느 정도로 집요하게 물어볼까?'하는 생각만으로 공부에 임해왔다. 공부를 하면서 사색을 하지 않고 깨달음을 얻지 못하니 배움을 즐기지 못했고 배운 것을 금방 까먹어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는 '학이불사즉망(學而不思則罔)' 그 자체였던 것이다.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시를 통해 처음으로 배움으로써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내가 얼마나 주체 없는 삶을 살아왔는지 성찰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새로 하게 되었다.

『논어』에 '인(仁)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지(知)는 사람을 아는 것이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나는 학이불사즉망(學而不思則罔)에서 벗어나 비로소 나를 알게 되어 지(知)를 실천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나를 사랑하는 인(仁)에 이르렀다. 알고 나니 정말 인(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자 하면 이를 수 있는 것이었다. 아주 작은 성과를 이를 때라도 남이 알아주길 바라기보다는 나 스스로 칭찬하는 습관을 들이고 사소한 선택이라도 주체적인 선택을 내리려고 노력했다. 예를 들어 전에는 친구들과 밥 메뉴를 선택할 때 ‘나는 아무거나 다 잘 먹어.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가자.’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오늘은 한식 아니면 양식이 먹고 싶다. 너는 어때?’처럼 주관을 가지려 노력했다. 이렇게 내 안에서 시작된 인(仁)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내 주변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 남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게 되면서 잊었던 꿈을 다시 떠올렸다. 이전에 누군가가 나에게 남의 말을 경청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다면 변호사가 되는 것이 어떠냐고 권유한 뒤로 의뢰인의 말을 경청하는 변호사라는 꿈을 가지고 글로벌리더학과에 입학하였다. 나에게서 인(仁)을 찾은 이후로는 의뢰인의 말을 경청할 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법으로 의뢰인이 인(仁)하는 것, 나아가 인(仁)이 있는 사회를 지키는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고3 담임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목적 있는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배움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여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겠다.

배움에 솔직한 자세로 임하자

최근에 인터넷을 둘러보면서 “요즘은 ‘나의 무지는 너의 지식보다 우월하다’가 시대정신인 것 같아서 슬프다”라는 글을 보았다. 그리고 그 밑에 ‘요즘 사람들은 틀린 것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는 댓글이 달렸었다. 이 글을 읽고 생각이 많아졌다. 자연스레 ‘나도 그런가?’하고 돌아보게 되었다. 생각해보면 나도 나의 무지를 마주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공부가 하기 싫을 때 항상 마음에 새기는 말이 있다. “공부란 굴욕의 순간을 견디는 것이다.” 공부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모르는 것은 화수분 마냥 계속해서 생겨난다. 그리고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무지의 크기를 실감하게 되면 스스로에게 진 것 같은 기분에 ‘굴욕적이다’고 느꼈었던 것 같다. 나와 다른 의견에 맞부딪힐 때도 그랬다. 말로는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며 상냥하게 말했지만 내심 ‘그래도 내가 맞는 것 같은데?’하며 나의 무지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던 순간이 있었다. 인터넷에서 본 글을 보고 스스로 부끄럽기도 하고 ‘어쩌서 요즘 사람들은 그렇다는 말이 나온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혼자 고민해본 바로는, ‘자존감’을 중요시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요즘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에 등극해 있는 에세이들의 제목에서 각박한 사회를 견디기 위해 사람들은 자존감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위에서 나의 경험에서 느꼈듯이, 자존감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놓쳐서는 안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존감을 넘어 자기 방어로 가면 배움의 자세를 해하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논어』에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이 참으로 아는 것이니라(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 是知也)’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는 배움에 있어서 솔직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 구절은 공자께서 말씀하신 사이불학즉태(思而不學則殆)와 관련이 있다.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오만방자해져 위태롭다는 뜻이다. 공자께서는 자신의 생각에 더하여 배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셨다. 그리고 그런 배움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다.

사이불학(思而不學)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자존감’과 ‘자존심’을 구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지를 인정하는 일이 잠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자존감’을 상하게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배우고 익힘의 과정에서 ‘굴욕의 순간’을 견디며 단단해져 자존감이 높아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움으로써 성취를 거뒀본 사람이라면 경험해보았을 것이다. 나의 사색에서 나아가 다른 사람의 것을 배움으로써 한단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위에서 말했던 ‘나의 무지는 너의 지식보다 우월하다’하는 사회 행태가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배움의 목적은 내 안에서 이룬 성장을 바탕으로 사회의 성장을 돕는 것이다. 즉, 배움이란 나와 사회를 연결하는 일이다. 사회의 덕으로 나도 누군가 또는 무언가에게 배우고 내가 배운 것을 사색함으로써 내 것으로 만든 뒤 그것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知)와 인(仁)을 실천하는 사회가 아닐까? 이렇게 개인과 사회가 상호작용하기 위해 배움과 생각 사이, 학이사(學而思)의 균형을 지키는 일은 인(仁)을 실천하는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이다.

“성균色”, 인성을 말하다

2022학년도 제2학기	과목명: 성균 논어	화요일 11:00~12:50
--------------	------------	-----------------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 학번: 2018312954	성명	한글: 이정우	한자: 李廷遇
담당교수: 금 종 현			

주제: 지(智) - 학이사(學而思) - 배움과 생각 사이

제목: 작은 발버둥

子曰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두워질 것이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로울 것이다.” 공자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배움과 배운 것을 토대로 스스로 소화하는 생각의 중요성을 모두 강조하고 있다.

사실, ‘배움’이라는 것은 인간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동물들 또한 태어나면서 모든 것을 알고 태어나지 않으며, 배움의 과정을 통해 진정으로 동물다워진다. 예를 들어, 개과 동물들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울음소리와 꼬리를 이용한다. 하지만 갓 태어난 새끼 개과 동물들은 목소리는 낼 수 있을 지언정, 꼬리를 흔드는 방법은 알지 못하고 태어난다. 꼬리를 흔드는 방법을 모름에도 그들은 자신의 어미가 하는 행동 양식을 통해 꼬리 흔들기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이를 모방하고자 노력한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 꼬리가 아닌 엉덩이를 흔들고, 그렇게 엉덩이를 흔드는 과정을 통해 점점 꼬리 근육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지식을 배우고 체화하는 과정은 동물들도 겪는 중요한 과정이다. 하지만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전유물이다. 지식을 머리에 넣고, 이 지식을 발전시켜 새로운 생각을 낳는 것을, 동물은 할 수 없다. 인간은 이와 다르다. 항상 생각하고, 새로움을 발견하고자 하는 본능을 지니고 있다.

공자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과 동물을 구분 짓는 생각은 중요한 가치를 지닌 행위 중 하나이다. 물론, 부족한 배움으로 편협한 사고에 빠지는 것 역시 피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학교는 학생들을 배움의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배움의 중요성은 쉽게 이해하지만 생각의 중요성은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기에,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생각의 가치에 관해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이 글은 이 의문에 관한 나 나름의 해석이며, 이 해석을 통해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글이다.

1. 길을 잃다.

나는 어렸을 적,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다. 책을 읽고 얻은 지식을 나 나름대로 해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상의 나라를 펼치는 일이 항상 재미있었다. 책을 다 읽고 이부자리에 누워, 미래는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꿈꾸는 것이 나의 일과였다. 엔진에 대한 책을 읽은 날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의 설계도를 생각하며 날아다니는 꿈을 꾸었고, 영어를 공부한 날에는 영어로 가사를 작사하여 노래하는 로커가 되어 무대에 올라가는 꿈을 꾸었으며, 미술에 대한 책을 읽은 날에는 인상파 화가가 되어 국화를 그리는 나를 꿈꿨다. 배우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그것이 어렸던 나에게 최고의 놀이이자 공부였다.

항상 공부가 재밌고 놀이였던 나에게, 첫 번째 시련은 찾아왔다. 처음으로 중학생이 되어 분반 시험을 치렀을 때, 새삼 경쟁 사회의 무서움을 깨닫게 되었다. 게다가 소위 특목고를 꿈꾸는 친구들은 성적에 관해서 예민하게 반응했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친구가 아니라 라이벌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행이었던 점은, 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나만의 방식으로 배우고, 나만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몇몇 과목, 특히나 국어와 같은 과목에서 ‘나만의 해석’은 틀린 해석이었고, 이는 나에게 첫 번째 시련이었다. 나는 이때 처음으로 재미없는 공부를 했고, 처음으로 ‘외우는’ 공부를 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고등학생이 되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와는 달리 동네 친구들이 하나도 없는 집단에 처음으로 속하는 경험을 하면서,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즐거웠다. 나와는 완전히 다른 친구들과 교류하며 새로움을 배우고, 새로운 생활양식을 만들어가는 것은 재밌는 경험이었다. 하지만 이윽고 두 번째 시련은 찾아왔다. 중학생 때보다도 더, ‘배움’의 가치가 ‘생각’의 가치보다 비대해진 공부는 점점 더 재미없어지게 느껴졌다. 그럼에도 어느 순간부터 목표가 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을 이루기 위해 그 재미없는 공부를 했다. 특히나 입시를 앞둔 때에는, 머리에 넣은 지식을 본인의 것으로 만들기보다 그냥 문형을 외워버리거나 공식을 외워 푸는 배움에만 집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난 내가 공부를 그렇게 즐거워했음을, 이제는 공부가 정말 재미없어 졌음을, 내가 더 이상 똑똑하지 않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첫 번째 시련은 여전히 미제였고, 두 번째 시련은 나에게 시련을 극복할 용기조차 빼앗았었다. 그때부터 나는 방황했고, 인생의 나침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인생의 나침반을 잃고, 나는 공부를 손에서 놓았다. 수능을 앞둔 순간 속에서도 멍한 모습으로 책을 바라봤고, 손쓸 수 없는 무기력증에 빠져 잃어버린 총명했던 나를 갈망했다. 그렇게 수능이 끝나고 공부의 공허함을 느낀 나는 평생 도전할 생각조차 해보지도 못했던 이상한 일들을 해보기 시작했다. 난생 처음으로 컴퓨터 게임에 빠져 몇일 밤낮을 새며 게임을 해보기도 하고, 게임 순위권에 들기 위해 정신이 나간 듯이 게임을 해보기도 하고, 노래를 못하는 내 모습을 보이기도 싫어 가지도 않던 노래방에 혼자 가서 2시간씩 노래를 불러 보기도 하고, 혼자 여행을 떠나 보기도 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저 흘러보내던 때, 문득 책이 읽고 싶어졌다. 어렸을 적 가장 즐거웠던 일로 기억되는 독서를, 다시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무작정 도서관에 가서 책 하나를 골랐다. 책을 고를 때는 큰 근거가 없었다. 그저 내가 좋아하는 계절이 여름이었기 때문에, ‘여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책 중 재밌어 보이는 책을 골랐을 뿐이다.

2. 긴 여름의 끝

그 책의 이름은 ‘긴 여름의 끝’. 제목을 보고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소설도 아니었으며 환경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긴 글이었다. 다른 책들처럼 ‘지구 온난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온실가스 생산을 줄이고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한다.’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책이었다면 기억에 남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이쪽의 내용도 들어가 있었으나, 나에게 충격을 준 것은 이런 부분이 아니었다.

인류의 역사는 생존과 투쟁의 역사였다. 인류는 야생에서 살아남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신체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족 직립 보행을 하는 생물이기에 이동과 생존에 관한 에너지 효율은 좋지 않고, 몸의 부피 대비 가진 신체 능력 또한 다른 동물들에 비해 월등히 부족했다. 때문에 야생에서 도구의 존재 없이 인간이 이길 수 있는 동물은 많지 않았다. 또한 불행하게도 ‘당분’을 주식으로 하는 몇 안 되는 동물이라는 점은, 인류가 이빨이 썩는 병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했다. 즉, 인간은 야생에서 생존함에 있어서 온갖 문제점을 타고난 존재였다. 그럼에도 인간은 살아남았다.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동물들보다도 넓은 서식지를 자랑하는, 최상위 포식자로서 군림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간단하다. 인간은 생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동물들은 체득의 형태로 생존에 필요한 것과 본인에게 유익한 것을 구분하는 수준의 학습을 중심으로 한다.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은 강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 생물이기에, 장점을 극대화하는 생존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인간은 이와 다르다. 나약하고 취약체였기 때문에, 생각을 무기로 삼

게 되었다. 그렇게 인간이 동물에 관한 공포를 극복했을 때, 그들은 자연이라는 새로운 적과 마주했다. 자연에게 대항하기 위해 인류는 새로운 기술인 증기기관을 끝내 개발해냈다. 하지만 또다시 전염병이라는 새로운 위협을 맞이했고, 인류는 슬기롭게도 곰팡이의 생존 전략을 이용하여 항생제를 개발해냈다. 그럼에도 인류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도 본인들의 행동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몰랐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면 항상 새로운 문제와 마주하게 되었다.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당면한 위협을 극복하고 새로운 위협을 맞이하는 역사의 반복이었다. 화석 연료를 사용하여 증기기관을 개발했을 당시에는, 인류는 지구의 모든 오지를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또한 페니실린을 개발하여 항생제를 최초로 개발한 시기에는, 모든 질병을 정복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화석 연료의 사용은 지구 온난화라는 새로운 위협을 불러왔으며, 항생제의 탄생은 새로운 병원체의 출현을 촉구했다.

그렇다. 인류는 위협 속에서 살아남아온 존재였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생각은 중요한 생존 전략이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달리, 인류의 생각은 정확한 방향성을 갖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 본인들의 생각이 어떤 방향성을 지니는지 알지 못했다. 단지 생각하는 능력을 이용하여 당면한 위협을 극복하고자 노력했을 뿐이었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그 책은 나침반을 잃어버린 나에게, 나침반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인지 역으로 되묻고 있었다. 나는 그 때서야 비로소, 방향을 끝낼 수 있었다.

공부를 함에 있어서, 특히나 생각을 함에 있어서 방향성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이었다. 애초에 맞는 방향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인류는 생각이라는 작은 발버둥을 통해 살아남았고, 끝내 최정상의 자리에 군림하게 되었다.

3. 작은 발버둥

긴 여름의 끝에서 돌아본 인류의 역사와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는 생각의 방향이 중요치 않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제야 나는 내가 길을 잃었던 것이 아니라, 애초에 옳은 길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나침반이라 생각했던 것은 부족한 지식으로 만든 나만의 생각, 그야말로 ‘思而不學則殆’였다. 올바른 생각을 갖기에는 배움이 부족했기에 나는 내가 길을 잃었다 생각했고, 나 자신의 논리에 그야말로 길을 잃어버렸다.

애초에 나침반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그리고 나침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음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나의 삶이 크게 변화했다. 더 이상 ‘나만의 생각’, ‘고정된 생각’이라는 사실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다. 교과서는 교과서 나름대로 원하는 답이 있을 것이고, 나는 나 나름대로 원하는 답이 있을 것이다. 이들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으며, 그 누구도 정답은 아니었다. 성적이라는 실적을 내기 위해서 잠시 다른 시각을 익힐지언정, 그 시각에 내가 먹히지 않을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다.

또다시 배우고 생각하는 것이 즐거워졌으며, 한동안 꾸지 않았던 꿈을 꾸게 되었다. 심지어 방황하던 시기에 했던 게임이나 노래를 부르는 것 또한 새로운 배움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배움에는 귀천이 없고, 지식에도 귀천은 없다. 단지 무엇이 되건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이를 생각하는 것만으로, 조금이라도 성장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물론, 아직도 어떤 과목은 특정 형태의 해석을 강요하고, 개인의 독특한 생각을 배제하기도 한다. 하지만 달라진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런 과목을 ‘불필요하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정 형태의 해석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의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경험을 하게 되고, 이는 우리의 생각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쉽사리 방향을 잃곤 한다. 처음에는 단순히 만화를 읽고 싶어서 했던 일본어 공부, 어느 순간에는 첫 계기를 잊어버리고 그저 단어를 외우는 공부가 되기도 하며, 처음에는 규칙을 찾는 것이 재미있어 했던 수학 공부가 수식에 파묻혀 재미없는 공부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렇게 잃어버린 방향에 질려버려, 그대로 도망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할 한 가지는,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길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아니라, 지금 도착한 그곳에서 그저 힘차게, 있는 힘껏 발버둥 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작은 발버둥 속에서 우리는 우리만의 답에 비로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정답이 아닐까 한다.



“성균色”, 인성을 말하다

2022학년도 제2학기	과목명: 성균 논어	요일/시간: 화요일/13:00~14:45
--------------	------------	-------------------------------

글로벌리더학부(과, 전공) 학번: 2020312176	성 명	한글: 정지원	한자: 鄭智元
담당교수: 김병목		검인	

주제: 지(智) - 학이사(學而思) - 배움과 생각 사이

제목: 야학이 일깨워준 학이사(學而思)

20세기 아동들의 잃어버린 꿈을 21세기 청년들이 이뤄주는 곳

나는 선생님이다. 낮에 다니는 학교에서는 학생이지만, 밤에 다니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다. 나는 수업 중에 교수님께 이름 불릴까 노심초사하면서 긴장하는 학생들 중 한 명이지만, 교탁 앞에 서서 학생들에게 우렁차게 질문을 던지는 선생님이기도 하다. 낮에는 배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교수님 얼굴만 멍뚱뚱 쳐다보다가, 밤에는 내가 수없이 반복해 설명한 내용을 또 까먹고 멍 때리는 학생들의 얼굴을 보고 실소하곤 한다. 모두가 퇴근한 캄캄한 저녁 시간, 불 켜진 반 지하 교실에서 희끗하게 머리가 흰 학생들을 가르치는 나는 야학 교사다.

야학은 근로 청소년이나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을 대상으로 야간에 수업을 하는 교육기관이다. 내가 다니는 야학의 경우 주로 검정고시 합격을 목표로 공부하는 60~70대 여성들이 다니고 있고 교사들은 대부분 내 또래 대학생들이다. 야학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내가 야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우연히 본 예능 프로그램 때문이었다. 퇴근 후 야학에 등교해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한 교사 분이 출연하셔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본업과 봉사를 병행하시는 선한 마음이 참 존경스러웠다. 그리고 배움의 한을 풀기 위해 낮에는 생업에, 밤에는 공부에 열을 다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에 깊이 반성하게 되었다. 그 날을 계기로 학교 근처의 여러 야학들을 찾아보던 나는 지금 다니는 야학의 모집 공고 글을 발견하고 지원한 이후부터 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당시 나는 내가 누려왔던 배움의 기회를 타인에게 베풀어주고 싶다는 생각에서 지원을 했었지만, 어언 1년이 지난 지금 나는 오히려 이곳에서 내가 배우게 되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걸 깨닫고 있다.

배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며 배우는 학생들

야학에서 수업을 하다보면 학생들의 열정에 놀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퇴근 후 야학에서 3시간씩 수업을 들으신 이후에 새벽 2~3시까지 복습을 하시는 분, 지체 장애가 있지만 배우려는 열망 하나로 1시간을 넘게 지하철을 타서 등교하시는 분, 야학에서 중졸·고졸 검정고시까지 치르신 뒤에 한국방송통신대를 졸업하고 모 대학 대학원 박사과정에 합격하신 분... 야학에는 감히 내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노력과 끈기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분들은 오직 배움에 대한 열정 하나로 고된 몸을 이끌고 모두가 퇴근하는 시간에 야학으로 등교한다. 피곤해도 배움을 게을리 하지 않고 매일 같이 책을 펴고 연필을 잡는다. 쏟아지는 졸음을 종이컵에 탄 믹스 커피 한 잔으로 몰아내고, 뻣뻣하게 뭉친 허리의 통증을 잠깐의 스트레칭으로 참아낸다. 그런 자세로 공부에 임하는 학생들을 바라보고 있자면 나는 그 어떤 순간에도 마음가짐을 가버이 할 수 없다. 그 어떤 내용도 대충 가르쳐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더더욱 열심히 수업을 준비하게 되고 수업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것들을 가르쳐 드리려 노력하게 된다.

이전에도 과외나 영어 학원 강사 아르바이트를 통해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쳐본 경험이 있지만, 야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이전 경험과는 다른 즐거움이 있다. 바로 학생들과 수업 시간 내내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소통은 학생들의 능동적인 ‘질문’에서 시작된다. 야학의 학생들은 질문이 참 많다. ‘방금 설명하신 게 이런 의미가 맞나요?’, ‘아까 해주신 설명을 다시 해주실 수 있나요?’와 같이 배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질문을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서 활용하기 위해 질문하시기도 한다. 예로 내가 알파벳의 발음을 가르쳐드리면 ‘어제 간판에서 이런 글자를 봤는데, 이렇게 읽는 게 맞나요?’라는 질문을 하시고, 내가 ‘coffee’라는 단어를 가르쳐드리면 ‘외국인 동료와 함께 일하는데 커피를 권유할 때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와 같은 질문을 하신다.

“*학이불사즉망, 사이불학즉태 (學而不思即罔, 思而不學即殆)*” (「위정」)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는 공자의 말이다. 공자는 성인의 가르침을 본받는 배움(學)과 가르침을 나에게 적용해보는 생각(思)이 함께 이뤄지는 공부를 강조했다. 나는 야학의 학생들을 보며 공자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게 된다. 나이가 들면 본인의 고집에 사로잡혀 현실 속에서 배우려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 학생들은 배움을 게을리 하지 않고 매일 열심히 정진하는 모습을 보이신다. 본인의 고정관념이나 자신의 경험만을 토대로 생각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배우려 노력하시는 것이다. 또한 학생 분들은 배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질문하시는데 이는 공자가 말한 배움(學)을 행하는 것에 해당한다. 배운 내용을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한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 질문하는 것은 공자가 말한 생각(思)에 해당한다. 즉, 학생 분들은 공자가 말한 배움과 생각을 함께 행하는 훌륭한 자세로 공부에 임하고 계신 것이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다보면 자연스레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나는 이분들처럼 배움과 생각을 함께 행하며 공부하고 있나?’ 자문할 때면 나는 늘 쉽게 대답하지 못한다. 사실 나는 여전히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어렵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흥미를 느낄 때도 있었지만 주로 시험을 잘 보겠다는 목표로 공부한 경험이 많다보니, 배운 지식을 삶에 적용해보는 과정이 내게는 어색하다. 그래서 수업 내용을 이해하고 단순 암기한 뒤에 시험이 끝나고 나면 암기한 내용을 다 잊어버리고 마는 그런 일련의 무의미한 과정이 매 학기 반복되어버린다. 더욱이 내가 전공하는 법학은 법률 규정을 해석하고 해석한 규정을 실제 사안에 적용하는 학문인데 생각하지 않고 공부해서는 훌륭한 법률가가 될 수 없다. 단순히 배운 지식을 기계처럼 암기해서는 결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없을뿐더러 변호사가 되어 직접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도, 판사가 되어 선례를 뒤집는 새로운 판결을 이끌어낼 수도, 학자가 되어 새로운 학설을 주장할 수도 없다. 이 모든 일들은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지 않고 공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야학의 학생들이 생각하며 공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나와 학생들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생각하다보니 논어 「현문」 편에서 공자가 한 말이 떠올랐다.

자기를 위한 학문을 하는 학생들

“*옛날의 학자는 자신을 위한 학문을 하였는데, 지금의 학자는 남을 위한 학문을 한다.*” (「현문」)

야학의 학생들이 학(學)과 사(思)에 적극적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학생들은 남을 위해,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남들이 보는 성과를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 공부한다.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배움의 즐거움 때문에 공부하고, 처음 다니는 학교생활이 재밌어서 공부한다. 언젠가 학생들에게 퇴근하고 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먼 길을 걸어 학교에 오는 각자의 이유가 궁금하다고 물었던 적이 있다. 한 학생은 우스갯소리로 치매를 예방하려고 학교에 다닌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영어 간판 읽어보고 싶어서 공부한다고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학생은 학교 와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게 재밌어서 다닌다고 말씀하셨다. 원하지 않는다면 검정고시를 보지 않아도 되고,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되지만 학생들은 그저 배우는 과정 자체가 즐거워서 야학에 다닌다.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배우는 과정 자체가 즐거워서 질문을 하고

복습을 한다. 배움이 즐거워 공부한다면 내면의 완성과 자아실현을 위해 공부하는 것에 해당하니, 공자가 말하는 자신을 위한 학문을 하는 참된 학자(學者)라 할 수 있다.

반면 나는 학생들에 비해 배움의 시간과 기회가 훨씬 길고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완성을 위한 배움보다 출세의 수단으로서 배움을 행해온 때가 많았다. 배운 내용을 체화해서 실제 삶 속에서 이를 활용하려 하기 보다는 지식의 활용 범위를 시험지나 문제집으로 한정했다. 시험이 끝나면 덮은 책을 다시 펼친 적이 없고, 과제나 시험으로서가 아니라 순수한 호기심에서 깊이 있는 탐구를 해 본 적이 드물다. 나는 대학에 와서까지 중·고등학교 때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공자가 말한 남을 위한 학문을 했던 것이다. 학생들은 내게 늘 배움에는 때가 있는 법인데 그 때에 맞춰 차근차근 공부해온 내가 참으로 부럽다고 하신다. 그런데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죄송스러운 마음에 머쓱한 웃음만 짓게 된다. 마음 깊은 곳에서 부끄러움을 느낀다. 공부하기 싫어 불평을 쏟아내던 순간들, 높은 학점을 공부의 최종 목표로 삼던 순간들, 내면을 성장시킬 목적이 아니라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길 목적으로 공부하던 그 모든 순간들이 나를 한없이 작아지게 만든다. 나는 학생들에겐 그토록 간절했던 배움의 기회를 원 없이 누리면서도 교만한 마음에 배움을 수단시하고 등한시 했던 것이다. 이처럼 자신을 위해 공부하지 않으면 공자가 말한 바와 같이 생각하면서 공부하지 못하니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나 자신을 위해 공부하겠다고 다짐한다.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야학에 다니시는 학생들 중 많은 분들이 1년 정도 공부하고 나면 검정고시에 응시한다. 1년 동안 한 반에서 함께 공부한 학생들이지만 시험에 있어서는 당연히 제각각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 야학에 다니는 학생들 대부분이 열심히 공부하지만 여러 이유와 사정들로 모든 학생이 시험에 합격하지는 못한다. 수업 때는 열심히 공부하시지만 집에 가서는 공부할 시간이 없어 복습을 못하시거나, 혼자 공부하는 것이 어려워 복습을 미루시거나, 특정 과목은 어렵다는 이유로 아예 포기하시는 등 여러 이유들로 불합격의 고배를 마시는 분들이 많다. 반면, 교사로서 내가 볼 때 합격하는 학생들은 단 하나의 이유로 합격한다. 합격하겠다는 마음과 의지, 즉 ‘생각’이 그것이다. 합격하는 학생들은 공부할 때 핑계를 대지 않는다. 공부할 때 ‘시간이 없어서’ 또는 ‘나이가 드니 기억력이 안 좋아서’와 같은 변명을 들기보다, ‘시간이 없으니 짬을 내서 공부를 했다’, ‘기억력이 안 좋아서 틈틈이 단어장을 들고 다니면서 외웠다’와 같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공부한 뒤에 후회 없이 시험에 임하고자 노력한다.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자신의 역량에 한계를 갖지 않는 것, 결국 합격할 수 있다는 의지와 끈기를 잃지 않는 학생들만이 합격의 기쁨을 맛본다.

“생각하지 않은 것이지 어찌 멀다 하겠는가!(未之思也 夫何遠之有)” (「자한」)

논어의 「자한」 편에 실린 공자의 말로, 상대를 간절히 그리워하고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상대와 나 사이의 먼 거리쯤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 말은 비단 연인 간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배움의 자세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이다. 우리는 어떤 일을 포기할 때 그것이 어렵거나 시간이 없거나, 두렵거나, 나이가 많아서 등의 이유를 들면서 합리화하곤 한다. 우리는 과연 그런 이유들이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스스로 솔직하게 자문할 필요가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 도전해보지도 않은 채 금방 포기해버리면 자기 자신의 역량을 전부 발휘해보지도 못하고 포기하는 것이 된다. 적어도 모든 수단과 노력을 동원해서 후회 없이 자기 역량을 발휘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만이 포기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야학에서 주경야독으로 공부하시고 마침내 검정고시에 합격해서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공자의 위의 말을 몸소 실천하신 분들이다. 상황과 여건,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과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탓하기보다, 처한 상황에서 가진 것들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갖고 닦아 공부하신 그런 학생들을 보며 나 역시도 깊은 깨우침을 얻는다.

진정한 공부의 왕도를 걸어 나가는 법

“배우고 그것을 때때로 익히지 않으면 기쁘지 않겠는가.(子曰 學而時習之 不亦說乎아)” (「학이」)

성인(聖人)의 가르침을 본받기 위해 쉬지 않고, 끊임없이 매순간 치열하게 익히다보면 그와 같은 경지에 이르러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성인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라는 공자의 큰 뜻이 느껴진다. 공자에 따르면 공부의 목표란 성인이 되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선한 본성을 실현하면 성인이 될 수 있고, 그 본성을 수양하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생각해야 한다. 학(學)과 사(思)를 조화롭게 행하여 내면의 완성을 이루고(修己) 천하를 이상적으로 다스릴 줄 알면(治人) 성인이 될 수 있다. 그렇기에 배움과 생각을 게을리 해서 안 되고 배움과 생각 중 어느 하나만 행해서도 안 된다. 야학은 내게 배움과 생각이란 무엇인지, 이 둘을 조화하기 위해선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생생히 깨우쳐주는 소중한 배움터이다. 내가 영어를 가르쳐드리는 학교이기도 하지만, 도리어 내가 학(學)과 사(思)에 대해 배우는 학교이기도 하다. 배움과 생각을 조화하여 공부하는 것은 여전히 내게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배우고 익히려 노력하는 학생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등불 삼는다면, 성인이 되기 위한 공부의 왕도를 천천히 걸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성균色”, 인성을 말하다

2022학년도 제2학기	과목명: 성균 논어	요일/시간: 화요일 15시~17시
--------------	------------	--------------------

의예과 학부(과, 전공) 학번: 2022313767	성명	한글: 최 민 석 한자: 崔 珉 碩
담당교수: 김 단 영		

주제: 지(智) - 학이사(學而思) - 배움과 생각 사이
제목: 배움과 생각에 대한 나의 견해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1. 學而不思則罔(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텅 빈다(혹은 얻음이 없다))

배움과 생각의 조화로 대표되는 『논어』의 구절 중 일부이다. 이 구절을 들을 때면 항상 나의 어릴 적 기억이 떠올라 (이유는 모르겠지만) 항상 미소가 지어진다. 특히 앞 내용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텅 빈다(혹은 얻음이 없다).’ 구절을 읽으면 더욱 그렇다. 나에게서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한 분이 있다. 바로 어머니이다. 어머니께서는 항상 배움을 통해 내가 깨달은 점을 중시하셨고 그런 방식으로 훈육하셨다.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직접 수학을 가르치셨는데 특정 개념을 배우고 나면 바로 문제를 풀게 하지 않고 항상 이 개념이 활용될 수 있는 곳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보는 숙제를 내주셨다. 예를 들어, 사칙연산 중 ‘더하기’를 배우고 나면 ‘더하기’가 언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지 5가지 이상 적는 것이 숙제였다. 그때는 정말 하기 싫고 힘들었고 어차피 문제에 다 나올텐데 왜 그렇게 하나며 투정을 부리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배운 뒤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보다 확실히 개념을 이해하는 방법은 없는 것 같다. 이러한 공부 습관은 체득되어 수능 준비를 하면서도 여전히 ‘왜 이 식을 사용했지?’, ‘왜 이 공식을 떠올려야 하지?’를 고민해가며 공부했다. 단순히 배운 것을 그대로 암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언제, 어떻게 쓰일 수 있는 내용인가를 생각했던 것이 내 사고의 깊이를 더해 주었고 수능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아 성균관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어머니께서는 내가 잘못된 것을 꾸중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면 따끔하게 혼내시고 난 뒤, 약 한 시간 정도 방에서 그 행동이 왜 잘못된 것이며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했을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생각하게 시키셨다. 그때는 참 무섭고 서러웠지만 직접 생각해 보며 깨달은 내용은 기억에 깊이 남아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조심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 같다. 가령 어렸을 때 학원을 빠지고 친구들과 놀았지만 거짓말로 학원을 갔다고 했다가 들통난 상황이 있었다. 이때 약 세 시간 정도 방에서 왜 거짓말을 하는 것이 나쁜지, 신뢰를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써서 내고 훈계를 들었었다.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 밖에 안 되는 아이에게 가혹해보일 수도 있지만, 나는 이 경험 이후, 남에게 신뢰를 저버릴만한 거짓말을 절대 하지 않았고 지금도 거짓말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처럼 하나를 배우고 이에 대해 두루 생각해봄으로써 다시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올바르게 처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공자가 위의 구절에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바가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하지만 요즘 우리 사회는 생각과 판단은 하지 않고 누군가로부터 배움을 수동적으로 받으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 중 젊은 세대들이 주로 읽는 글에서 흔히 보이는 ‘세 줄 요약’이라는 현상도 이러한 경향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우선 ‘세 줄 요약’이란 앞선 긴 글을 읽기 귀찮은 사람들을 위해 작성자가 임의로 상황을 세 줄로 요약하는 것을 일컫는다. 원래는 앞선 글이 너무 길고 복잡하거나, 바쁜 생활 속에서 시간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글 뒤에 짧게 요약한 글

을 덧붙이는 것에서 시작하였지만 요즘은 흔히 글의 본문 뒤에 ‘세 줄 요약’이 덧붙여지고 있다. 오히려 마지막에 해당 내용이 없으면 ‘세 줄 요약 좀 주세요.’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한다. 사실 제대로 된 요약을 하고 참고용으로만 이용하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고 오히려 좋은 현상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세 줄 요약’에는 작성자가 임의로 요약을 하기 때문에 작성자의 주관이 많이 들어가고, 중요한 내용의 생략도 많은 편이다. 원래 글은 글을 읽으며 여러 관점에서 두루 생각하기 위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 과정을 건너뛰고 작성자의 입장에서 요약된 글만 맹신한 채 잘못된 댓글을 달기도 한다. 나는 이러한 사회 현상이 생각하는 훈련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당장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공부법만 보아도 직접 글을 읽고 내 생각을 정리해 나가기보다는 선생님 혹은 강사분들이 요약해주는 정보를 그대로 학습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교육청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능을 준비하며 교과서를 읽어본 적이 없다.’라는 질문에 71%의 학생이 ‘그렇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길면 12년, 짧으면 3년 동안 이러한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학생들에게는 ‘세 줄 요약’의 방식이 너무나 익숙하고 편한 것이다. 이러한 현대 사회의 기이한 현상 속에서 공자의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텅 빈다’라는 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많은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지만 정작 기억에 남고 내 것으로 만든 정보들은 별로 없는 상황 속에서 ‘생각’의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커졌고, ‘생각’이란 행위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감히 주장한다.

2. 思而不學則殆(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과거 한 방송에서 연예인 이경규 씨가 ‘잘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고 지금도 여전히 회자되고 있다. 이러한 말이 많은 관심을 받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는 오직 자신이 가진 좁은 식견으로 함부로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자신만의 생각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사람들이 많다. 즉, 배우려 하지 않으니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없어 자신만의 독단에 갇히는 사람들이 많다. 애초에 배움이란 공자가 말씀하셨듯, 상호 배려와 인정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인데 자신의 생각으로 일종의 틀을 만들어 버리고 그 외의 부분은 모두 틀렸다고 생각하니 ‘생각만 있고 배움은 없는’ 상황과 같다. 지금은 혐오의 시대라고 불릴만큼 여러 갈등이 많은 시대인데 당장 남녀갈등, 세대 간의 갈등만 보아도 위와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음을 알 수 있다. 서로가 자신의 한정적 정보만을 믿고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심한 경우 망상과 아무 근거도 없는 소문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즉, 위태로움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과거 우리나라의 ‘물 부족 국가 지정’ 문제가 있다. 내가 초등학교학생이었을 때, 학교에서 환경의 날 행사 때마다 항상 물 부족 관련 포스터를 작성하게 했고 공익 광고 또한 많이 했으며 현장체험학습(소풍)도 수자원 박물관으로 다녀왔다. 실제 교과서에도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물을 아껴써야 된다고 설명하며 샤워할 때 물을 미리 받아놓고 그 물만 사용하기, 변기 물 탱크에 벽돌 넣어두기 등 일상생활에서 물을 아낄 수 있는 각종 방법을 가르쳐었다. 그 근거는 ‘UN에서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지정했기 때문에’라고 했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UN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히 인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치인 및 몇몇 이익단체들이 임의로 생각해 근거 없는 사실을 퍼뜨리고 국민 또한 별다른 생각 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연 강수량이 1277mm로 세계 평균 807mm보다 훨씬 많은 편이고 UN 공식자료를 찾아보더라도 우리나라는 ‘물이 거의 부족하지 않거나 전혀 부족하지 않음’의 범주에 속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과거 논란의 불씨가 되었던 UN의 보고서 내용도 올바른 지식이 갖춰져 있지 않은 사람들의 자의적 해석이다. UN이 인용한 PAI(국제인구행동연구소, 민간단체)의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을 물 부족 국가라고 지칭하였는데 이 보고서는 사실 보고서에 불과하고 국가별 상이한 물의 운용과 급수 시스템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보고서이다. 이러한 점들을 정확한 배움 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짧은 식견으로 자의적으로 해석

하였으니 정말 위태롭게 하였음과 다르없다. 위의 사례에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점은 ‘思而不學’이 정치의 영역에서 발생했을 때 더욱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왜 해당 구절이 논어의 많은 상론(上論) 중에 주로 올바르게 정치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위정(爲政)」편에 나오겠는가? 그만큼 정치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덕목이고 한 사람의 정치가 국가를 태(殆) 혹은 망(罔)으로 이끌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개인 한 사람이 생각 없이 살고, 망상에 빠져 사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정치 지도자들이 배움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생각에 갇힌다면 정치적 편향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정치적 다양성은 인정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다 목살하고 심한 경우 다른 사람을 틀렸다면 죽일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정치에 기준이 모호해지고, 정치 지도자의 생각에 의해 국가가 움직여 버린다. 쉽게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의 뺨을 때렸는데 ‘자유’라는 미명 아래 ‘내 맘인데 어쩔래?’, ‘내 생각대로 한 건데 무슨 상관이나?’ 이렇게 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정치적 행위에는 규칙이 있어야 하고, 정치적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질서와 체계를 만들어 줄 수 있다.

3. 배움과 생각의 조화

위의 사례들을 통해 종합해보면 결국 공자의 말씀에는 배움과 생각에는 균형과 조화가 있어야 망(罔)과 태(殆)를 만들어 내지 않는다는 뜻이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많이 배워 놓고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는 사(思)를 남에게 전가 시키지 않아야 하며, 생각만 한다고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배움과 생각은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까?

우선 남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자는 「술이(述而)」편에서 ‘세 사람이 길을 가도 스승이 있다’라고 하였으며 「공야장(公冶長)」편에서는 공문자의 시호가 ‘문(文)’이 된 이유를 설명하며 ‘배우기를 좋아하며,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처럼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식견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인식하고 타인이 맞을 수도 있다는 인정이 있어야 배움이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태도 안에서 자신의 생각을 전개할 때 자신의 견해가 좀 더 풍요로워지고 확장될 것이다.

또한 배움을 계속하여 우리의 삶과 직결시켜야 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신 ‘학(學)’과 ‘사(思)’를 사회적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학(學)’은 이론적인 학습을, ‘사(思)’는 학습의 의미를 해석하여 나의 삶에 적용하는 연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움을 통해 학습한 정보들을 계속하여 나의 삶에 투영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학을 다니며 인간관계와 소통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생각과 반성을 통해 잘한 것이 있다면 취하고, 못한 것이 있다면 다음엔 어떻게 할지 고민해보고 실천하는 것과 같이 계속하여 스스로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배움을 삶에 끌어들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심득(心得)의 공부 자세가 필요하다. 현재 대학생인 나에게 더욱 중요한 자세일 것이다. 요즘과 같이 학문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연구 분야는 더욱 세밀해지는 시대에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다 한들 다른 사람의 연구 내용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만의 지식에 갇혀 배움을 기피하는 사람은 학자 사회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또한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나만의 말로 다시 이해하여 나의 연구에 다시 반영해야 한다. 즉, 배움이 생각이 되고 생각이 배움이 되는 현대 사회에서 ‘심득(心得)’하는 자세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성균색 인성에세이를 위해 글을 쓰고 있지만 이렇게 글을 쓰는 지금도 나는 부족한 점이 많다.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나도 부족한 점이 많은데 배움과 생각의 조화에 대해 글을 쓰고 있으니 스스로가 부끄럽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하지만 이 에세이를 통해 배우고 반성했던 점들을 다시 나의 삶에 긍정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나는 성인도, 군자도 아닌, 평인(平人)이다. 어쩌면 공자께서 보신다면 우인(愚人)의 삶을 살고 있는구나 라고 평가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타고남이 그렇기에 지금까지 나는 나의 외연을 확장하여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한참이 지난 후, 내가 비로소 충분한 외연을 갖게 되었을 때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성균色”, 인성을 말하다

2022학년도 제2학기	과목명: 성균 논어	요일/시간: 화요일 13:00 ~ 14:50
--------------	------------	--------------------------

학부: 소프트웨어학과	학번: 2018313267	성 명	한글: 이창민 한자: 李昌玟
담당교수: 김 미 라	검인		

주제: 지(智) - 학이사(學而思) - 배움과 생각 사이

제목: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살아남기

인간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배운다. 가정교육부터 시작해서 초, 중, 고등과정 교육, 학부 과정 교육, 직무 교육 등 수많은 배움의 기회가 제공된다. 만약 모든 사람이 그 수많은 교육의 모든 가르침을 완벽하게 이해하여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육이 완벽하지는 않다. 때로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고, 올바르게 못한 관념을 정의롭고 위대한 사상으로 둔갑시켜 설명하기도 한다.

내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회초리는 아이의 교육에 필수적인 요소였다. 말을 듣지 않는 아이는 회초리로 버르장머리를 고쳐 잡아야 한다. 말로만 해서는 고쳐지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는 그 시대의 중론에 따른 훈육을 받으며 자라왔다. 실제로 회초리가 효과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덕분에 나는, 조용하고 얌전한 모범생 같다는 말을 듣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회초리의 공포로 인해 아빠와 친해지기까지 오래 걸렸다. 그게 조금 아쉬울 뿐이다. 여기서 내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구시대의 폭력에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애도나, 몽매한 당대의 시대상에 대한 분노가 아니다. 내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매질을 동반한 훈육이 올바르게 믿어지는 시대로부터, 대화를 통한 훈육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믿어지는 시대까지의 변화의 흐름이다. 과거에도 폭력은 어떤 방식으로든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오늘날에도 훈육 과정에는 회초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시대상에 상관없이 본인의 믿음대로 행동할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 대부분은 당시의 시대상에 따라 행동하리라 생각한다. 본인의 행동이 올바른 것인지 올바르게 못한 것인지, 정의로운 것인지 정의롭지 못한 것인지 생각해보지도 않고, 단순히 시대의 흐름에 몸을 맡겨버리는 것이다.

혹자는 이런 경향이 유독 한국인들에게서 도드라진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생각한다. 거대한 시대의 흐름으로부터 배운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보다 편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모두가 똑같이 행동하니 이 행동이 잘못된 것인가를 생각해볼 필요도 없어지고,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어진다. 그냥 남들처럼 똑같이 행동하면 되는 것이다. 내게 회초리질을 했던 사람 중, 과연 이 회초리질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부작용을 낳을지 조금이라도 생각해보고 했던 사람이 있을까? 아이에게 회초리질을 해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시대. 그렇게 사람들은 배운 대로 행동했다.

과거 계급 사회 시절에는 하층민에 대한 폭력이 용인되었었다. 최하층민은 가축보다 못한 존재로 여겨지기도 했었다. 그 시대로부터 현대까지 변화해올 수 있었던 건 소수의 계몽이었다.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진리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대립하는 생각을 표출하는 사람들로 부터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점점 커져서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배움을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지 않았다. 배운 것에 대해 생각해봄으로써 변화를 이끈 것이다. 지금도 절대적 진리로 믿어지는 것이 미래에 바뀌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배운 것에 대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시대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본인의 생각과 믿음대로 행동할 줄 아는 사람. 그런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은 올바르게 못한 것이 올바른 가치로 여겨지는 시대 속에서도 진정으로 올바른 가치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생각 없는 배움이란 빈 껍데기일 뿐이다. 논어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사람은 여러 가지를 배운다. 하지만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게 해당시키고, 또 시세(時勢)에 해당시켜서 생각해 보지 않으면 배운 것이 희미하고 불안정하여 확실한 것을 파악할 수가 없다. 참으로 몸에 밴 학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공자께서도 생각 없는 배움은 몸에 밴 학문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셨다. 그만큼 배움에 있어서 생각은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는 것이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자기 생각이 올바른 것인지, 타당한 것인지도 철저하게 검증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생각이 올바르게 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올바르게 믿고 밀어붙이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그렇기에 배움과 생각의 조화가 중요한 것이다.

배움이 부족한 사람은 자기 생각이 올바른지 아닌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무지하기에 그릇된 생각을 실천으로 옮겨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올해에 일어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건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이 사건은 러시아의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의 결정으로 발발한 전쟁으로, 수많은 사상자와 민간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푸틴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에는 수많은 정치적으로 요소가 얽혀있겠지만, 그것에만 매몰되어 인간 존엄성의 중요성을 망각하였다. 오래된 역사로부터 배울 수 있는 가치들을 잊은 채 당장에 이익에 눈이 먼 것이다. 그로 인한 피해는 무고한 양측 국민만 받고 있다. 올바른 생각과 판단을 하는 데에는 배움의 중요성이 크다. 어찌면 푸틴은 국민의 인권보다는 본인의 야망과 관련된 배움만 받아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배움은 생각을 다양하게 만들어주기도 한다. 배움이 적은 사람은 생각의 폭도 적어진다. 이것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게임에도 적용된다. 인기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LOL)’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오로지 한 가지 캐릭터(챔피언)만 플레이하는 유저를 보통 ‘장인’이라고 부르곤 하는데, 장인이 상대 관점에서 무서운 이유는 오랫동안 플레이하며 쌓아온 숙련도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장인들은 수백 판, 수천 판을 플레이하며 상대 챔피언에 따라 어떻게 플레이하면 유리한지에 대한 데이터를 쌓았다. 그 데이터를 매판마다 적용하기 때문에, 이미 출발선에서부터 앞선 상태로 시작하는 것이다. 장인이 쌓은 거대한 데이터가 바로 배움이다. 초보자는 적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장인은 수많은 선택지 중 최적의 방안을 선택하여 대응한다. 거기에서 배움으로 인한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장인은 초보자보다 생각의 폭이 넓다.

논어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어진 이를 보면 그와 같이 되기를 생각하고, 어질지 못한 이를 보면 스스로 그렇지 않은지를 반성하여라.’ 배움에 있어서 롤모델은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언행을 보면서 본받을 점을 배우면 스스로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자님의 말씀처럼 부족한 사람을 보면 반면교사의 자세로 자신을 되돌아볼 수도 있다. 나의 롤모델은 프리미어 리그의 레스터 시티라는 팀에서 뛰고 있는 ‘제이미 바디’라는 축구선수이다. 제이미 바디는 만 27세에 1부 리그에 데뷔하여 만 29세라는 축구선수로서는 매우 늦은 나이에 성공을 거두었다. 나이에 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서 빛을 내는 제이미 바디의 모습은 너무나 존경스러웠다. 나는 평소에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을 때마다 ‘너무 늦지는 않았을까?’, ‘지금 시작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는 했다. 하지만 제이미 바디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키가 작다는 이유로 15세라는 어린 나이에 팀에서 방출됐던 제이미 바디는 그런 역경에도 불구하고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해나갔다. 심지어 축구를 하기 위해 공장일을 병행하면서 축구를 해나가기도 했다. 그는 나에게 나이, 환경에 상관없이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고, 이는 나의 삶에 있어서 큰 배움이 되었다. 물론 제이미 바디도 모든 면에서 완벽한 인간은 아니다. 하지만 본받을 점이 있다면 그 점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것이 롤모델을 통한 배움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훈육에는 회초리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물론 누구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나도 그렇게 자라왔으니까’라는 게 그런 생각의 원인이라는 게 문제였다. 시대가 바뀌면서 내 생각도 훈육에 회초리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바뀌었는데, 그 과정에도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하는 의문이 문득 들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그 과정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단순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뒤늦게나마 생각을 해보았다. 회초리질은 금지돼야 한다는 의견은, 폭력은 어떤 식으로든 용납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와 아이의 인격 형성 과정에 문제를 끼칠 수 있다는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였다. 반면에 회초리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아이의 버릇은 말로만 해서는 쉽게 고쳐지지 않기에 비행 청소년이 되거나 엇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는 회초리질이 필요하다는 선조들의 경험에 기반한 것이라 보였다. 나는 양쪽의 의견을 분석해보았을 때, 회초리질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올바른 것 같다고 생각했다. 물론 이게 정답이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이 나의 가치관에 좀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을 뿐이다.

나는 지금까지도 수많은 배움의 순간에 맞닥뜨렸지만, 앞으로도 더욱 많은 순간이 더욱 찾아올 것이다. 그런 순간마다 그 배움을 그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 생각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자님의 말씀대로, ‘배우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두울 것이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는다면 위태로울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 과정은 편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학이불사즉망 사이 불학즉태’의 가르침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앞서 말했듯이, 배울 때에는 배운 것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는 게 필요하다. 배운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에 대해 분석해보거나 실제에 적용해 봄으로써 견문을 밝혀야 한다. 반대로 생각을 할 때는 그 생각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고민해보아야 한다. 생각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면 관련된 지식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이나 서적을 통해 관련 지식을 찾아보거나,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물론 그 지식도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충분한 지식이 갖추어진다면 생각을 하는 데에 있어서 위태로움이 사라질 것이다.

점점 시대는 빠른 것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배움과 생각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자세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는 맞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간의 올바른 배움과 생각을 위해서는 이 자세를 고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끊임없이 배우고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 자세는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나도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배움과 생각을 끊임없이 해나갈 텐데 공자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해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에 따른 성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서, 지금보다는 성장해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나는 시대가 강요하는 사람이 아닌, 시대에 상관없이 올바르게 본받을만한 자랑스러운 사람이 될 것이다.

“성균色”, 인성을 말하다

2022학년도 제2학기	과목명: 성균 논어	요일/시간: 수요일 09시~11시
--------------	------------	--------------------

글로벌 리더학부(과, 전공) 학번: 2021312558	성명	한글: 유선진	한자: 柳善眞
담당교수: 김 세 종			

주제: 지(智) - 학이사(學而思) - 배움과 생각 사이

제목: 쓰레기 집에서 얻은 배움

나는 매주 토요일 ‘도배 기술자’로 변신한다. 지극히 평범한 나를 보고, 도배 기술자를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평범한 여대생인 내가 토요일마다 도배 기술자로 변신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봉사활동 때문이다. 나는 2013년부터 어려운 가정의 집을 청소하고 단장하는 ‘그린 하우스’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8년 동안의 긴 시간동안 봉사에서 많은 경험을 얻을 수 있었다. 그 경험을 통해 나는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의 진리를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이 글을 통해 그 배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한다.

아버지를 따라 쓰레기 집에 들어가다

2013년, 어느 날 아버지는 나에게 함께 봉사활동에 가자고 제안하셨다. 항상 나를 도우면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셨던 아버지는 잔뜩 기대하시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셨다. 아버지의 기대와는 다르게, 나는 크게 망설였다. 망설임 이유는 한 가지였다. 초등학생이었던 나에게 봉사활동은 이른바 ‘시간 때우기’ 활동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때 당시 친구들 사이에는 누가 가장 봉사활동을 많이, 그리고 쉽게 채우는지를 뽐내는 것이 유행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다른 친구들은 즐면서 채우는 봉사활동 시간을, 오랜 시간 일하고 고생하면서 채운다니 너무 미련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봉사활동은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야.”라고 말씀하시며 반짝이는 눈으로 설득하시는 아버지를 실망시킬 수는 없었다. 그래서 솔직하지 못한 마음으로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토요일 아침,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도착한 곳은 말 그대로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다. 그곳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쓰레기들로 가득 차있는 일명 ‘쓰레기 집’이었다. ‘세상에 이런 일’에서 가끔 볼 수 있는 쓰레기 집을 눈 앞에서 본 나는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쓰레기 집에서 삶의 현장을 경험하다 - “學而不思則罔”

벽에는 쓰레기가, 천장에는 곰팡이가, 바닥에는 바퀴벌레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었다. 코를 찌르는 냄새는 방진 마스크를 뚫고 두통을 유발했다. 그러나 충격도 잠시, 담담하게 청소를 시작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을 따라 본격적인 집 수리를 시작했다. 먼저 집에 가득 찬 쓰레기를 봉투에 담은 일부터 시작되었다. 다 같이 집안의 모든 가구를 밖으로 옮기고, 벽지를 뜯고 장판을 들어냈다. 벽에 가득한 곰팡이는 열악한 환경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화장실 배수관으로 커다란 쥐가 도망가고, 싱크대 밑에는 수백 마리의 바퀴벌레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곳이었다. 충격으로 머리가 멍하면서도, 내가 지금까지 정말 작은 세계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약자들이 이렇게 열악한 곳에서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교과서에서,

또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어려운 환경의 사람들을 많이 접해왔었다. 약자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배웠으며, 그들의 삶을 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셀 수 없이 배웠었다. 하지만 글자와 화면으로 배운 지식은 나에게 얽은 동정심만 유발했을 뿐, 인생에 어떠한 미동도 주지 못했다. 배웠지만, 나의 것이 되지 못한 지식들이었다. 공자께서는 배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學而不思則罔” 『논어』: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공허하다.

주어진 내용만을 외우고 익히는 지식은 자신의 것으로 소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텅 비게 된다는 것이다. 아, 나는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공허한 배움만을 반복하며 어떤 지식도 나의 것으로 만들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다 갑자기 봉사를 통해 삶의 현장에 들어가게 되었다. 단순한 배움으로만 접하던 약자들의 삶 속에 들어가고, 나눔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남을 도우며 살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한 번도 약자의 삶을 들여다보지 못했던 내가 부끄러웠다. 항상 배워 왔던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지 못했다는 것이 한심했다. 나는 왜 나눔에 대해서 배웠지만, 배운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일까?

그 이유는 내가 주입식 교육, 즉 생각할 계기를 주지 않는 교육을 통해서 배움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배운 정보들은 나를 비롯한 많은 학생들에게 어떠한 생각이나 실천을 일으키지 못했다. 많은 친구들은 ‘나눔은 삶’에 대해 배웠지만, 나눔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 결국 주입식 교육은 봉사활동을 단순히 시간 때우기로 생각하는 아이들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그런 아이들 중 한 명이었던 나는 직접 삶의 현장을 경험하고 나서야, 나눔이라는 배움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었다. 나눔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며, 남을 도왔다고 뽐낼 것도 아니며, 살면서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나눔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제야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던 ‘남을 도우면서 살자’라는 말씀의 진정한 뜻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졌다.

쓰레기 집에서 질문을 던지다. - “질문하며 신중하게 생각하고”

봉사 첫날 나는 ‘남을 도우면서 살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고, 그 깨달음으로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봉사를 지속할 수 있었다. 생각을 통해 만들어진 배움의 힘이란 바로 이런 것일지도 모르겠다.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봉사를 다니면서, 정말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특히 어려운 가정의 집을 수리하는 활동인 만큼, 신청자들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매번 봉사 때마다 나는 신청자분들에게 인테리어 계획을 설명드리고, 같이 벽지를 재단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어린 나이에 또래가 아닌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기도 했다. 그러나, 그분들의 진실한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점점 익혀나갔다. 이렇게 신청자분들과 매주 대화하면서, 약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삶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토로하실 때가 많았다.

그런데 그런 사연들을 들을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약자들은 나라에 의해 보호되지 못하는구나..” 법은 약자들에게 냉정했다. 신청자셨던 한 할머니의 삶에서도 나라의 매정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분은 집을 나가버린 부모를 대신해 손자를 키우고 계셨는데, 그 부모의 동의가 없어 아이 양육을 위한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계셨다. 아무리 소득이 없어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막막한 상황이었다. 할머니의 어떤 도움 요청에도 나라는 화답하지 않았다. 또 지체 장애인 부부 신청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스스로 휠체어에 오르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장애 등급이라는 행정 기준에 따라 장애복지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밖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결국 쓰레기로 가득한 집에서 생활하게 된 것이었다. 이렇게 국가가 약자들을 외면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접하게 되면서 나는 믿고 있던 지식에 의문을 갖게 되었다. 사회문화 시간에 배운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는 어떤 약자들에게는 무용지물이었다. 정치와 법 시간에 배운 민법은 어떤 이들에게는 삶의 장애물이 되었다. 진리라고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처음으로 의문을 품고, 질문하기 시작했다.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와 그에 관한 민법들의 허점들에 대해서 찾아보기 시작했고,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많은 고질적인 문제들에 대해 알게 되었다. 공자께서는 삶의 현장에서도 배워서 아는데 그치지 않고, 의심스럽거나 미답지 못한 것은 질문을 통해서 확실히 하며, 신중하게 생각하고 명료하게 분별할 것을 요청하셨다.

“널리 배우고 깊이 있게 질문하며 신중하게 생각하고
명료하게 분별하여 독실하게 행할 것” 『중용』

중용에 담긴 ‘질문하며 행하라’라는 말씀처럼 나는 삶의 현장에서 배움에 그치지 않았다. 현장의 경험을 계기로 배운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무조건적으로 지식을 수용하는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있던 나에게, 질문이라는 것은 낯선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질문과 탐구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질문이라는 것에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학교에서 배우는 법과 행정에서 벗어나 지식을 더 탐구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책이라고는 소설밖에 모르던 내가 법과 행정에 관련된 책을 읽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관련 도서를 100권 이상 읽으면서,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지식들을 얻을 수 있었다. 또 이렇게 얻은 지식들은 내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안경이 되어, 또 다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질문이라는 계기를 통해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고, 의문을 통해 검증하는 버릇을 가진 신중한 탐구자가 될 수 있었다.

쓰레기 집에서 나의 꿈을 찾다 - “思而不學則殆”

다년간의 봉사로 약자들의 삶에 개입하고 그들과 소통하면서, 약자들에게 공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또 그 속에서 얻은 많은 배움을 통해서,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 끝없이 사고하고 생각하며 질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학교에서 진리처럼 배웠던 법과 행정이 약자의 삶을 가로막는 역설적인 상황을 생생하게 접하면서, 나는 약자들에게도 법률과 복지 제도들이 친절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이런 나의 생각은 더욱 확고해졌고,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를 내 손으로 바꾸어 보자는 뚜렷한 목표를 세우게 되었다. “배움에는 뜻을 세우는 것보다 먼저 할 것이 없다.”라는 율곡의 말처럼, 배움에 있어 가장 중요한 ‘뜻’을 처음으로 갖게 된 것이다. 이런 뜻을 바탕으로 나는 다시 배움을 욕망하기 시작했다. 법과 행정을 배우는 학과에서 약자들을 생각하는 사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다. 학창 시절동안 이런 목표를 가지고 힘든 공부를 지속할 수 있었고, 노력 끝에 법과 행정을 배우는 성균관대학교의 글로벌 리더학부에 들어올 수 있었다. 목표에 한 발짝 다가선 내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공자의 말씀이 있다.

“思而不學則殆” 『논어』 :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이제 내가 가진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 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배움을 통해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생각은 배움을 통해 더 풍요로워지고 확장되며 창의적이게 되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목표를 위해 끝없이 고민하고 생각하며,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식을 성균관대에

서 차근차근 배워나가고 있다.

얼떨결에 가게 된 봉사활동에서 마주한 쓰레기 집에서 나는 진정한 배움을, 삶의 목표를, 나의 꿈을 찾게 되었다. 처음 쓰레기 집을 갔을 때의 나는 미숙하고 공허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學而不思則罔”의 말씀처럼 생각을 통해 배움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었다. 또 중용의 말씀처럼 질문을 통해 나의 지식을 확장해나가면서 무한히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었다. 쓰레기 집에서 배움을 얻은 나는, 이제는 쓰레기 집들을 법과 행정을 통해 치유해 나가고자 다시 배움에 몰두하고 있다. 앞으로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라는 공자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균형 있는 배움을 통해, 약자들을 보호하는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봉사활동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 : <https://blog.naver.com/ngogoodpartners/220737143650>

(이 서식에 따라 3~4페이지 분량으로 작성. 줄간격160, 글꼴 바탕, 크기11포인트 유지, 5~7천자)

“성균色”, 인성을 말하다

2022학년도 제2학기	과목명: 성균 논어	요일/시간: 화요일/11:00~12:50
--------------	------------	------------------------

경제학과 학번: 2021310777		성 명	한글: 채시현	한자: 蔡施賢
담당교수: 김종석	검인			

주제: 지(智) - 학이사(學而思) - 배움과 생각 사이
제목: 10년 후의 나에게 - 배움을 통한 행복을 바라며

1. 21살 미아(迷兒)의 짧은 회고록

지금까지 나에게 있어 공부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자 도구였다. 즉, 공부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한 중간과정이었었는데, 그 과정에서 즐거움과 재미를 느꼈던 기억보다는 지루함과 고통, 시험과 성적압박으로 인한 초조함과 불안울 느낀 기억이 더 많다. 그리고 나는 지난 학창 시절 동안 공부를 통해 부모님의 칭찬, 선생님의 인정, 여러 교과우수상에서부터 마지막으로 ‘대학교’까지 얻어내며 입시를 위한 공부를 마쳤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드디어 입시에서 벗어나 원하던 대학교에 입학했으니 기뻐해야 할 게 당연한데 어딘가 허무하고 우울한 기분까지 들었다. 원인은 쉽게 찾을 수 있었다. 12년 동안 내가 했던 공부는 그 본질과 방향성이 ‘대입’이라는 막연한 초점에 맞춰져 있었는데, 막상 그것을 이루고 나자 더 이상 공부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논어』 「위정」에 따르면 공자는 15세에 학문에 뜻을 두고, 삶의 원대한 목표를 세웠다고 한다. (吾十有五而志于學) 즉, 공자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로 자신의 꿈을 설정하고, 공부를 통해 그 꿈을 이루겠다는 공부의 방향성을 잡은 것이다. 만약 내가 이처럼 진심으로 하고 싶었던 일이 있고, 입시공부가 그것을 위한 발판이었다면 지금과는 달랐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에게서는 뚜렷한 꿈이나 삶의 목표가 없었다. 꿈이 없으니 공부의 방향과 이유가 모호했고, 그저 남이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따라 하는 타성적인 삶을 12년이나 살아온 것이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온 나는 당연하게도, 미아 상태가 되었다.

2. 공부의 목적

나는 무엇을 위해 공부를 한 걸까? 지금에 와서야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잘못된 걸까? 하고 생각해봤다. 하지만 나는 억울했다. 변명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그동안 나는 이 나라에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바를 충실히 따랐을 뿐이다. 착한 딸, 착한 학생으로 살아오며 외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다른 생각을 할 틈 따위는 없었다. 다른 애들보다 더 좋은, 더 높은, 더 나은 성적과 등급을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내가 지난 12년 동안 이 끔찍한 학벌주의와 경쟁이 만연한 사회에서 살아남은 방법이고, 학교와 사회가 내게 가르쳐준 것이었다.

“옛날의 학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 공부했는데, 지금의 학자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부를 한다.”
 (『논어』 「현문」)

정말 옛사람들의 말씀 틀린 게 하나 없다고 생각했다. 지금보다 수천 년 전의 사람이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더 이상 학생들은 ‘나’를 위한 공부를 하고 있지 않다. 자신의 본질을 밝히고,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공부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너무도 명확하기 때문이다. 이런 암담한 환경에서 학생들에게 위기지학(爲己之學)까지 바라는 것은 너무 뻔뻔한 것이 아닐까? 내가 지난 12년간 했던 공부는 위인지학(爲人之學)이었다. 나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부를 했고 공부의 본질이 아닌 외형만을 배웠다. 너무나도 타성적이고 수동적인 삶이었다. 12년 간 배운 것을 통해 어려운 문제와 시험들을 풀어봤지만, 그 배움을 통해 나의 내면을 위한 문제를 해결해본 적이 없다. 그리고 나는 지금에야 깨달았다. 어쩌면 내가 ‘공부’를 핑계 삼아 나와 마주하는 것을 미루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지난 대입 시절을 돌아보면, 친한 친구들과의 경쟁, 수행평가와 발표, 내신과 등급 그리고 모의고사와 수능 등으로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내가 힘들었던 시기는 대학 원서를 쓰기 위해 희망하는 학과를 정하고 자소서를 썼던 고등학교 3학년 여름이었다. 더 이상 진로를 결정하는 것을 늦출 수 없는 시기였고, 나는 생활기록부에 남긴 나의 3년간의 기록들을 살피며 어떤 학과를 골라야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을 고른 것이 아니라,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진로를 택한 것이다. 지금까지 공부가 우선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필사적으로 외면했던 부분을 건드리니 건디기가 너무 힘들었다. 이때까지 미뤄둔 나약하고 겁많은 나 자신이 싫어져 자기혐오에 빠지기도 했다. 나는 순서를 틀렸다. 스스로에게 진실한 삶과 내면의 나를 빛내기 위한 공부를 해야 했는데, 그것을 ‘공부’로 덮어두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다. 즉, 나의 공부에는 나의 꿈과 인격실현을 위한 ‘실천’과 ‘행동’이 빠져있었다. 내 안에 쌓인 것은 표면적인 지식일 뿐, 그 안에는 중심이라고 부를 것이 없었다. 공자는 ‘인이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며, 지는 사람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람이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였다. 나는 공부를 통해 ‘나’를 알게 된 기억이 없다. 오히려, 공부로써 나를 외면하고자 했다. 지금 내가 느끼는 허무함과 우울함 그리고 불행(不幸)의 원인은 나에게 있었던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되자,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해온 공부의 목적이 헛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3. 배움과 생각, 그 사이의 어딘가

이처럼 내가 지금까지 나를 잊으며 공부했던 까닭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나의 내면을 외면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에서 ‘생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배우는 것이 나의 인생과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내가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그저 머릿속에 수학 공식과 영어단어, 국어 지문을 넣는 것에 급급하여 공부의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텅 비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논어』 「위정」)

공자는 배우기만 하고 자신이 배우는 것이 어떠한 맥락과 의미를 지니는지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두운 것이며, 반대로 생각만 하고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는 것 또한 위태로운 것이라고 말한다.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내가 이 구절을 조금 더 일찍 알게 되었다면, 내가 하고 있는 공부의 본질에 대해서 더 빨리 깨닫게 되지 않았을지 생각해보았다. 하루하루가 바빠 흘러가고 끊임없이 경쟁하는 사회에서 그런 생각을 할 시간이 어디 있겠느냐고 물을 수 있지만,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마다 삶의 이유와 더불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자신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필요하다. 이것들 없이 그저 주변의 흐름에 휩쓸려 수동적으로 인생을 보내는 것은 눈을 뜬 채로 죽어있는 것과 다르지 않게 않은 것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 자신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배움을 통해 이를 실현하는 세상, 공자가 만들고자 했던 세상은 현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물질적인 가치가 중요시된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본질은 ‘사람’ 즉, ‘사랑을 가진 인격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숙한 자아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자신의 자아를 찾을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고전이 존재 이유라고 생각한다.

다시 공자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배움이 있으려면 생각이 필요하고 그 둘의 균형을 잡을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이 말을 ‘내가 공부하고 얻는 지식이 앞으로 나의 인생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될 수 있고, 내가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나를 위한 진정한 배움을 위해서는 ‘생각’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행동으로 보이는 실천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결국 배움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생에서 평생 일어나는 과정이고 그 배움을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면 자신의 삶을 더욱 가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앎이 있으면 곧 행이 있어야 하고, 알아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앎이 아니다’라는 뜻의 지행합일(知行合一)은 나의 이러한 생각과 매우 비슷하다.

“경서를 연구하는 것은 현실에 직접 적용하여 실천하기 위해서이다. 경서 해석의 목적을 천하의 일에 두지 않으면 단지 책을 잘 읽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성호 이익)

성호 이익이 말한 것처럼, 공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지혜이며, 현실 세계에서 배움을 통해 얻은 것을 실천해야 비로소 ‘지’의 최종 목적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나는 더 이상 지식만을 쌓는 표면적인 공부는 하고 싶지 않다. 타인을 의식하여 성과를 보여주는 것도, 주변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공부하는 것도 이제는 질렸다.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선택하고, 그사이에 많은 생각을 담아 나의 삶에서 실천하는 공부를 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첫 단계는,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알아가야 한다. 나 자신에게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나’를 공부해야 비로소 ‘성숙한 자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4. 10년 후의 나에게 - 21살의 내가

대입을 목표로 했던 학창시절, 비록 나에게 진실되지 못한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시절의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때의 나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고, 주변 환경에 나를 맞추어 열심히 살았다. 그저 자신을 대하는 게 어색한, 미성숙한 어린 학생이었을 뿐이다. 시간이 흘러 나는 대학교에 입학하고 계열제로 1년을 보냈다. 아직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알지 못한 채 대학 원서에 쓸 학과를 정하며 많은 걱정을 했는데, 전공이 정해지지 않은 계열제로 입학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목적을 상실한 공부로 인해 방황하다가 어느샌가 좋은 학점과 장학금만을 바라보고 있는 나를 찾을 수 있었다. 학창시절에 했던 타성적인 공부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깨닫고 나자 내가 그동안 했던 공부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그리고 2학년이 된 지금의 나는, 나를 위한 공부를 하고자 마음을 먹었다. 더는 늦지 않도록, 나에게 충실해지기로 결심한 것이다. 사람은 언제나 성장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나는 스스로가 변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따라서 10년 후의 내가 배움을 통해 행복을 느끼고 있기를 바라며,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21살의 나는 앞으로 ‘나를 위한 배움’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용야」), ‘공부는 즐거움이다.’ 라는 말에 공감하기 위해 나의 남은 대학 생활을 공부의 즐거움을 느끼며 보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10년 후의 내가 기억하는 현재 나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했기를 소망한다.

“성균色”, 인성을 말하다

2022학년도 제2학기	과목명: 성균 논어	요일/시간: 목요일 9시~10시 50분
--------------	------------	-----------------------

학부(유학동양학과) 학번: 2021311191	성 명	한글: 조예빈	한자: 曹睿彬
담당교수: 성 시 훈		검인	

주제: 지(智) - 학이사(學而思) - 배움과 생각 사이
제목: 우리는 부끄러움을 배워야 한다.

나에게는 세 살 터울의 여동생이 있다. ‘호적 메이트’라거나 ‘우리 엄마 딸’이라는 말이 있듯이 나와 동생도 바람 잘날 날이 없이 별 것 아닌 일로 매일 같이 싸우는 여느 형제들과 비슷한 관계였다. 하여튼 나와 동생의 철천지원수 역사는 아주 오래됐는데 우리의 역사 중에 내가 기억하기에 가장 오래되고 절대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었다. 내가 유치원생이었을 무렵 나와 동생이 감기에 걸렸던 날 우리는 소아청소년과에 갔었고, 약국에서 약을 받아왔다. 그 나이대 애들답게 나와 동생은 장난감으로 둔갑한 비타민에 눈이 팔렸고 엄마는 우리에게 작은 비타민을 하나씩 사 주셨다. 나는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 길에 비타민을 다 먹어버렸고 동생은 아끼고 아끼며 집까지 비타민을 가져왔고 그게 금덩이라도 되는 양 자랑스럽게 책상에 비타민을 모셔뒀다. 보통의 아이들이 그렇듯 동생의 비타민에 대한 흥미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고, 동생은 비타민을 까맣게 잊고 티브이에 나오는 만화에 정신이 팔린 듯 보였다. 그때를 틈타 나는 몰래 동생이 고이 모셔둔 비타민을 슬쩍 가져가서 달콤한 승리를 맛봤다. 완전 범죄였다. 동생이 불현듯 생각난 자신의 비타민을 확인할 때까지만 해도 말이다. 동생은 누가 자기 걸 훔쳐 갔다고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고 나는 그 짧은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느꼈다. 거짓말을 할까, 솔직하게 말하고 동생의 원망을 들을까, 그냥 모른 척할까... 엄청난 고뇌를 느끼던 그때, 나의 수많은 시나리오 속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의외의 전개가 펼쳐졌다. 엄마가 말을 꺼내셨다. “그거 안 먹는 줄 알고 엄마가 먹었어. 미안해.” 엄마가 드셨을 리가 없다. 분명 내가 먹고 엄마는 부엌에 계신 걸 봤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됐다. 동생은 차마 엄마에겐 화낼 수 없었는지 잠깐 짜증을 내고 다시 티브이를 보러 갔고, 엄마도 다시 할 일을 하러 가셨다. 그리고 나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터질 듯이 빨개졌다. 나는 그때 도저히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엄마는 거짓말을 하는 거고 사실은 내가 몰래 먹었노라 솔직하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게 바로 내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나의 부끄러움이다. 동생에게 언니답게 잘 대하라는 수십 번의 잔소리보다 그 한 번의 부끄러움이 나에게 더 크게 다가왔다. 그때 처음으로 자신에게 부끄러운 행동이 정말로 잘못된 행동이라고, 나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짓은 하지 말자고 다짐했다.

또 다른 일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다. 수업이 일찍 마치던 날 친구들과 난 하교 후에 아파트 상가 단지에 있는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으러 가기로 했고 우리는 들뜬 마음으로 학교를 나섰다. 우리 학교 앞에는 제법 큰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위험했기 때문에 등교 시간이나 하교 시간이면 선생님이 교통 지도를 하셨다. 그런데 그날은 마침 선생님께서 안 계셨고, 친구들은 빨리 떡볶이를 먹으러 가자며 그냥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자고 했다. 나는 항상 신호를 지키라는 말을 들어와서 그 상황이 몹시 어색했다. 당장이라도 어른이 찾아와 우릴 혼낼 것만 같았고 담임 선생님의 신호등을 지키라는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다. 비타민을 몰래 훔쳐먹었던 그 날처럼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스쳐 지나갔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른 전개가 펼쳐지지는 않았다.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어른이 무단횡단을 하는 우리를 보고 혼을 내지도, 갑자기 달려온 차와 사고가 나지도 않았다. 우리는 그냥 아무도 모르게 무단횡단을 해서 떡볶이를

먹으러 갔다. 그렇지만 나는 왠지 모르게 속이 울렁거렸고 손에 땀이 나고 얼굴에 열이 오르는 걸 느꼈다. 이때 나는 유치원 때 동생과 있었던 그 부끄러운 기억을 떠올렸다. 속된 말로 나는 그때의 내 친구들이 너무 쪽팔렸다. 아무런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고, 어쩌면 누군가가 무단횡단을 하는 우리를 보고도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나는 나와 내 친구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이건 내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남에게서 느낀 부끄러움이다. 그런데 이때는 내 감정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내가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나는 왜 그때 부끄러움을 느낀걸까. 이 의문은 한참을 잊고 있다가 대학에 와 유학을 공부하며 다시 떠올랐고, 비로소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다.

맹자는 인간에게는 누구나 사덕(四德)의 근거인 사단(四端)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측은지심(惻隱之心)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가엾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仁)의 단서가 되고, 수오지심(羞惡之心)은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의(義)의 단서가 된다. 사양지심(辭讓之心)은 다른 사람에게 겸손하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예(禮)의 단서가 되며, 마지막으로 시비지심(是非之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으로, 지(智)의 단서가 된다. 맹자는 인간에게는 이 네 가지 단서가 있기에 인간은 본디 선한 성질을 타고난, 불인인지심(不忍人之心)을 가진 존재라 말했다. 내가 이 글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건 이 사단(四端) 중에서도 수오지심에 관한 것이다.

수오지심(羞惡之心)이라는 말을 뜯어서 살펴보면 단순히 내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미워한다는 뜻이 아니다. 수오지심은 ‘나의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이라는 뜻이 있다. 그리고 맹자는 인간은 누구나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곧 의(義)의 단서가 된다고 말한다. 나의 잘못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의로움의 증거가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남의 악함을 미워하는 것은 왜 의로움의 단서가 되는 걸까?

유가에서는 나를 먼저 다스리고 정돈하는 것(修身)을 먼저 한 다음에야 집안을 다스릴 수 있고(齊家) 이를 다한 후에야 나라와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治國平天下)고 말한다. 이처럼 유가에서는 인(仁)과 사랑의 실천 방법으로 ‘친친(親親)’을 제시한다. 나에서부터 시작해 나와 가까운 가족, 친척, 지인, 타인으로 사랑의 범위를 점점 넓혀가는 것이다. 어떻게 나를 사랑할 줄 모르는데 가족을 사랑하며, 가족을 사랑할 줄 모르는데 남을 사랑할 줄 아느냐는 것이다. 즉, 나에서부터 공동체로, 사회로, 세계로 나의 인식 범위를 넓혀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유가의 논리는 ‘남의 착하지 못함을 미워함이 곧 의(義)’라는 맹자의 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단순히 나의 잘못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진정한 의로움이라 할 수 없다. 남의 잘못까지 미워할 줄 알아야, 즉 나의 인식 범위를 남까지 확장하고 그것을 나의 일처럼 여기며 착하지 못함을 미워할 줄 알아야 그것이 비로소 의(義)라는 것이다. 그리고 맹자는 이러한 의로움은 성인의 특징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고 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린 시절에 나의 잘못을 엄마가 대신 책임지는 것을 보고 느낀 부끄러움은 나의 의롭지 못함에 대한 깨달음이었던 것이고, 친구들의 무단횡단을 보고 느낀 부끄러움은 친구들의 의롭지 못함이 나의 의롭지 못함으로 확장됨을 깨달은 것이었다.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후에는 내가 성숙해지며 내가 아닌 친구들의 잘못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낀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내 속에 있던 의문이 하나 해소되는 기분이 들었다. 나의 감정의 원인과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동시에 다른 의문이 하나 더 들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정말 남의 잘못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가?

혹자는 현대사회를 ‘분노의 사회’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이를 보고 그것이 의롭지 못하다며 쉽게 분노한다. 그리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잘못된 대상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자신의 모습을 정당화한다. 그렇지만 앞에서 ‘의(義)’와 ‘수오지심(羞惡之心)’에 대하여 말하며

알 수 있었듯, 옳지 못함에 분노하는 것은 의로움이 아니다. 우리는 사회의 잘못됨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껴야지, 분노를 느껴서는 안 된다.

부끄러움은 안으로 향하는 감정이다. 부끄러움을 느낀 사람은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그것을 남에게 말하기를 꺼린다. 그것이 스스로 잘못된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노라는 감정은 부끄러움과 그 결이 다르다. 분노는 밖으로 향하는 감정이다. 분노를 느끼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며 비난의 화살을 타인에게 돌린다. 안에서 밖으로 방향성이 명확한 감정이다. 분노는 나의 감정을 타인에게 폭력적으로 배설하며 그 감정의 폭력이 정당한 것이라고 합리화하도록 만든다. 그것은 전혀 인(仁)하지 못한 행동이다.

예컨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네이버의 인터넷 뉴스 페이지 마지막에는 무분별한 악성 댓글을 막기 위해 댓글 대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좋아요’, ‘훈훈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 기사 원해요’라는 다섯 가지 이모티콘을 제공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옳지 못하다 여기는 사건을 다루는 뉴스에 ‘화나요’ 이모티콘을 누르며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다. 옳지 못한 일이 당연하게 ‘화남’이라는 감정으로 치환되는 사회는 폭력적이고 불인(不仁)하게 느껴진다. 우리의 사회는 분노의 사회가 아니라 부끄러움의 사회가 되어야 한다. 남의 잘못을 보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잘못됨을 알며 고쳐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공자는 “배우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두울 것이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는다면 위태로울 것이다.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라고 말했다. 우리는 모두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 학습을 통해 ‘의로움’에 대해 배운다. 그렇지만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와 남의 잘못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배우고 있지 않다. 사람들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숨기고 남의 잘못에 분노하기에 바쁘다.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내 일처럼 여길 줄 알아야 하고, 끊임없이 생각하며 잘못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며칠 전 중간고사를 전부 치르고 오랜만에 가족들의 얼굴을 보기 위해 본가에 내려갔다. 다 같이 저녁을 먹으며 ‘비타민 사건’에 대해 말했다. 동생과 엄마는 전혀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때 정말 부끄러웠었다고, 엄마는 왜 그랬었냐고 여쭙봤을 때 엄마는 “잘 기억 안 나는데 아마 니가 먹은 줄 알고도 그랬을걸. 강 짜증 줌 듣고 말지 니네 싸우는 거 말리는 게 더 힘들다.”라고 답하셨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답을 들으니 맥이 풀리는 느낌이었다. 십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당혹스러움과 긴장, 부끄러움이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당사자인 동생과 엄마는 기억조차 못 하고 나 혼자 신경쓰고 있었다는 사실이 웃기기도 했다. 그리고 그날 동생에게 편의점 박카스 기프티콘을 선물해줬다. 동생은 ‘ㅋㅋㅋㅋㅋㅋㅋ 기사’라며 나의 선물이자 소심한 사과를 받아줬다. 내 최초의 부끄러움은, 생각보다 별일이 아니었다.

가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아주 큰 일로 생각하고 두려워한다. 자신의 잘못이 부끄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사실을 부정하거나 되레 화를 내기도 한다. 그렇지만 잘못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결코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잘못과 남의 선하지 못함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정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의(義)와 불의(不義)를 구별할 수 있고 스스로와 사회를 의로운 것으로 바꿔나갈 수 있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배워야 한다.

"성균色", 인성을 말하다

2022학년도 제2학기	과목명: 성균논어	요일/시간: 수요일 / 11:00~12:50
학과: 프랑스어문학과, 학번: 2021311994	성 명	한글: 김하연, 한자: 金河延
담당교수: 유은주		

주제: 지(智) - 학이사(學而思) - 배움과 생각 사이

제목: 학(學)에 심(心)을 더하면 배움이 된다.

지난 여름, 가족들과 함께 떠날 여행지를 고르기 위하여 여러 휴양지를 찾아보던 중, 문득 든 생각이 있습니다. ‘스위스가 어디였더라? 고등학생 때 세계지리 공부를 하며 분명 지도상의 위치를 외웠던 기억은 나는데... 오래동안 책을 펴지 않아서 그런지 이제는 기억이 잘 안 나네’. 수능을 잘 치기 위해 몇십 번이며 들여다보고 공부했던 세계지도였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제 머릿속에는 그 무엇도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올해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동생이 저에게 수학 문제를 가지고 와 풀이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수학 성적이 늘 좋았던 저는 학생 시절 문제를 풀던 감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신 있게 펜을 들었지만, 막상 문제 앞에 앉으니 문제의 풀이 방법도, 심지어는 기본 개념도 기억이 나지 않아 꽤 당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생이 된 후 새롭게 공부하게 된 것도 많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며 스스로를 위로하였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제가 고등학교 시절 대체 무엇을 그렇게 공부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잠자는 시간도, 밥 먹는 시간도 줄여가며 열심히 공부한 기억은 선명하나, 정작 무엇을 공부했는지, 그 알맹이가 기억이 나지 않아 스스로의 공부머리를 의심하기도 하였고 한편으로는 회의감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대학에 와서 하는 공부 또한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저에게는 ‘대학 입시’라는 분명한 목표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학습에 열심히 임하였습니다. “대학에 가면 놀아도 된다. 그러니 대학부터 가라”라는 어른들의 말을 믿고 우리나라 대다수의 고등학생들은 저와 마찬가지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공부에 열과 성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 과정이 절대 헛된 것만은 아니지만, 아마 제가 느낀 공허함은 저 혼자만 느꼈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인을, 저는 우리 사회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성과주의’는 현재 대한민국 사회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말일 것입니다. 대학에 합격하는 것은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내딛는 첫발이자 달성하는 첫 ‘성과’이며, 그 이후에도 학생들은 좋은 학점을 받아 장학금을 타기 위해, 그 이후에는 좋은 회사에 입사하여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 끝이 없는 경쟁사회에 놓이게 됩니다. 그 결과 내 주변 사람을 그저 나의 경쟁자 중 하나로 인식하게 되고, 그들보다 더 앞서가기 위해 정작 중요한 가치들을 놓치며 살기도 합니다. 마치 경주 트랙 위에 선 경주마처럼, 우리는 오직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아등바등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높은 토익 점수를 받기 위해 한 영어단어라도 더 머리에 욱여 넣고, 남들보다 하루빨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책에 머리를 박은 채 글자들을 암기하기 바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성과’라는게 없을 테니까요. 노력의 결과를 물질적인 형태로 구현하는 데에 급급한 우리는 마치 그것이 중요한 숙제가 된 것처럼 여기며 살게 되며, 그 결과 배움을 통해 덕을 쌓고 자아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를 그저 그렇게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쉽게 지치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탈진, 다시 말해 ‘번 아웃’이라는 현상은 이러한 사회에서 파생된 가장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제 페이스에 맞춰서 공부하기보다는, 남을 이기기 위해 공부하며 그 결과 과도한 시간과 체력을 쓰게 되어 한순간에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번 아웃 현상은 우울증처럼 정신 기능을 온전치 못하게 하는 상태로도 이어질 수 있으나, 우리 사회는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과 공부에 속도를 더욱이 올리려고 합니다.

이런 경쟁 구도가 만연해 있는 사회의 근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한민국 근대화의 역사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과거 대한민국 사회 속에는 급속도로 진행 중이었던 근대화에 맞춰 신(新)자유주의 사상이 퍼지게 되었으며, 그 결과 정부는 공기업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연봉제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나라 전체의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를 했을지는 몰라도, 채용과 해고가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제도 아래에서 개인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는 경쟁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 ‘성과주의’라는 개념도 확산되었으며 자신의 업무 능력을 남보다 더 키우는 것은 일종의 생존 경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현대까지 이어져왔으며, 사람의 역량을 세부 단위로 나누어 평가하는 사회상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21 세기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는 어릴 적부터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자랐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은 필수적이며, 나는 내 옆의 사람보다 우월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세뇌를 받게 된 것이죠. 여기에 외모지상주의적 가치관도 퍼지게 되면서, 외모를 가꾸는 일 또한 하나의 공부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라는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그리고 얼핏 보면 기괴한 사회상을 바로 잡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배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공자의 가르침을 참고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자는 『논어』 위정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학이불사즉망 사이불학즉태(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반대로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로울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말은 배움과 생각의 올바른 조화를 강조하는 논어의 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사회에 비추어 볼 때 비로소 현대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이 넘쳐나는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매 순간 새로운 정보가 생성되고, 그 정보는 우리 삶 곳곳에 파고들기 때문에 ‘살기 위해 배워야 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성장시키기 위한 진정한 배움이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구절을 통해 공자는 학(學)의 과정을 거친 후, 그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생각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생각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은 보다 정밀해질 수 있으며, 또 견고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배움과 생각을 연결 짓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가치 있는 배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하는 공부는 공자가 강조한 ‘생각’의 과정을 생략한 듯합니다. 우리가 마구잡이식으로 정보를 입력하고 또 암기하고, 시험을 치기 위해 그것을 잠시 ‘사용’하는 과정은 ‘학(學)’의 과정에만 그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움의 내용은 우리 머릿속에 잠시 머무른 후, 시간이 지나면 기억 속에서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공자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는 사회의 모습도 찾아보고 반성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사이불학즉태 (思而不學則殆)’ 라는 말을 통해 생각만 하고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을 다른 일에 임할 때도 나태해질 수 있고, 주체적이지 못한 삶의 태도를 지니게 될 수도 있다고 언급합니다.

현재 우리는 감각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감 대로, 또는 나의 촉 대로 행동하는 것이 가끔은 득이 될 수 있어도,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는 중요한 상황에서 감각에만 의존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배움을 통해 지혜를 쌓고, 결정의 순간에는 지혜를 이용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단 부딪히고 보자는 사회상은 배움을 등한시하게 하며, 이것은 우리가 가지는 삶의 태도와도 직결되며 배움을 소홀히 하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렇듯, 공자의 가르침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사이에서는 괴리가 나타납니다. 아마 제가 지도상 스위스의 위치를 까먹은 이유는 시험을 치기 위한 암기식의 공부를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생에게 수학 문제 풀이를 알려주지 못한 이유는 과거 수학 공부를 할 때 오롯이 제 감만 믿고 문제를 풀이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교 보이”, 또는 “유교 걸”과 같은 말이 자주 쓰일 정도로 유교 사상을 바탕에 두고 있는 대한민국은 우리가 이와 같은 괴리감을 느끼게 하는, 일종의 모순된 사회라고 파악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가장 첫 번째로, 우리는 ‘배움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공부에 임하는 태도에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논어』의 첫 장에서 공자는 ‘학이시습지 불역열호(學而時習之, 不亦說乎)’ 라는 말을 통하여 배우는 것의 기쁨을 강조합니다. 이 구절을 읽은 후, 저는 스스로가 하는 공부에 대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공부라는 것은 하기 싫고, 귀찮고, 또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억지로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살게 됐고, 그 결과 배움이라는 행위 자체에 늘 부정적인 태도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즐거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앞으로 배움에 임하게 된다면 학습의 효과는 필히 더 뛰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길러야 합니다. 단순히 내용을 암기하고 시험을 치르기보다는, 내가 배운 내용을 스스로 정리해보고, 관련된 주제에 대한 토론과 같은 활동에도 참여하면서 배움과 생각을 연결 지으려고 노력한다면, 지식은 지혜가 될 것이고 결국 공자가 말한 진정한 공부에 한 발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배움을 단순히 ‘글’을 공부하는 것에 국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해석하며, 저는 진정한 배움이란 세상의 이치를 공부하고 그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보다 더 잘나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아닌, 과거의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공부가 진정한 배움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로,

매 순간 내가 경험하는 일들을 배움의 연장선이라고 여기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경쟁과 성과는 성실과 노력이라는 가치가 덧대어져 그 이미지가 만들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실함과 노력이 표면적으로만 아름답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공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배움과 생각을 끊임없이 연결 짓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성균色”, 인성을 말하다

2022 학년도 제 2 학기	과목명: 성균 논어	요일/시간:
-----------------	------------	--------

경영학과 학번: 2018312777	성명	한글: 강서현	한자: 姜瑞現
담당교수: 이주강			

주제: 지(智) - 학이사(學而思)-배움과 생각 사이

제목: 모든 생각은 배움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서식에 따라 3~4페이지 분량으로 작성. 줄간격16pt, 글꼴 바탕, 크기11포인트 유지, 5~7천자)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공자는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언음이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로울 것이다”, “학이불사즉망, 사이불학즉태”의 구절을 통해 배움과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한다. 작은 화면 위로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필요한 정보를 모두 찾을 수 있는 정보가 넘쳐나는 우리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선택과 행동을 통해 진정한 배움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우선 배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배움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나뉘볼 수 있다. 1)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얻고 익히는 것 2) 행동을 본받아 따르는 것. 이 두 가지 의미의 배움에서 ‘생각’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많은 나라들이 그렇겠지만, 한국은 전형적인 ‘암기식’ 공부법을 채택하여 암기를 잘하는 사람을 ‘공부 잘하는 사람’, 즉 ‘똑똑한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그동안 주어진 공부에만 집중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바빴던 학생들은 배움을 통해 어떤 생각을 가지는 시간조차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배움을 통한 생각을 강조하는 공자의 말이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하던 것을 멈추고 온전히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 필자 역시 그렇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현대인들은 많이 없을

것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고 설명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MBTI 성격 유형 검사가 나왔고,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몇십억 인구의 성격을 단 16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어떤지 판단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을 보며 우리 사회의 '생각의 깊이'에 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사람에 대해 직접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고, MBTI로 그 사람이 어떤 것인지 유추하는 생각의 오류를 저지르는 것이다. 이는 타인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적용된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생각하기보다, 유형 검사에서 알려준 알파벳 네 자리로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원하는 것이 뭔지조차 명확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현대 사회에는 선택지로 넘쳐나기 때문이다. 중요한 상황뿐만 아니라, 저녁 메뉴를 결정하는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더 나은 선택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결정 장애 증후군 'FOBO(Fear Of Better Option)' 라는 신조어도 나오게 되었다. 스스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을 통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다.

공자가 배움과 생각의 조화로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배운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하지 않는다면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공자는 배우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배웠던 것에 대한 자기 생각이 더욱 중요하고, 생각하지 않고 배우기만 한다면 진정한 배움이 아니라고 말한다.

필자 역시 공자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우리 모두 시험이 끝나고 일주일 뒤면 그 과목에 대한 대부분의 기억이 리셋되는 경험이 있을 것이다. 우리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암기식 공부는 우리 것이 되지 못할 때가 많다. 공책에 뽀뽀하게 써서 외웠던 재무 공식들조차 시험이 끝나면 거짓말처럼 머릿속에서 사라진다. 이는 오로지 '시험'을 위한 공부를 했기 때문이다. 배우고 생각하지 않는 결과를 '망'자로 표현하고는 하는데, '망'자에는 그물의 틈새 때문에 마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속이는 기만이라는 뜻을 포함한다. 내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시험을 보려고 하면 기억이 가물가물한 것이 그 예시이다. 만약 그 공식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어째서 a에서 b라는 개념을 나눠야 c를 구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생각'하여 진정한 '나의 배움'으로 만들었다면 그 공식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을 것이다.

경영학과에 재학하며 훌륭한 교수님들께 여러 경영학적 이론들을 배울 수 있었지만, 학부생으로서 이와 같은 이론들을 접목시킬 수 있는 경험이 부족했다. 실전에 대한 갈증을 안고 자교의 학회들 중 '실전 마케팅 학회 SCAN'이라는 곳에 지원하게 되었다. 수많은 학회 포스터가 걸려있었지만,

‘실전’이라는 단어 하나로 지원하고 싶은 학회가 명확해진 것이다. 지원서와 면접을 거쳐 SCAN 15기가 되었고,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들과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당사의 마케팅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안서를 작성하며 실전 마케팅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머리에 단순히 하나의 개념으로만 남아있던 마케팅 이론들이 깊은 생각과 경험을 통해 ‘나의 배움’이 된 것이다.

반대로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는다면 이 역시 위태롭다. 위태롭다는 것은 불안하다는 것으로,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틀리며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다. 영상은 옳고 그림을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판단의 순간에 위태로움은 큰 혼란을 자초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로써 배움은 생각을 낳아야 하고, 생각은 배움으로부터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마케팅 학회를 하면서 이론에 대한 배움이 없이 오로지 내 생각, 직감으로만 산학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없었을 것이다. 나의 생각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근거, 즉 배움이 있었기에 제안서에 쓰여진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확보될 수 있었다.

모든 ‘생각’은 ‘배움’으로부터 시작된다. 단순히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셔야겠다는 생각도, 갈증이 날 땀 물을 마셔야 한다는 배움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시험 문제지에서 같은 공식을 쓰지만 다른 유형이 나온 수학 문제도, 기존에 배웠던 지식을 통해 생각하고 풀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찾아야만 풀 수 있다. 이렇듯 모든 배움은 생각을 낳고, 모든 생각은 배움으로부터 출발하여 진정한 ‘나의 배움’이 되었을 때 진정한 공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취업 준비를 하며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부담되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필자에게 성균논어는 정말 큰 가르침을 주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션 스티븐슨의 “You are enough”라는 말이다. 다른 사람의 행동, 태도를 본받아 따르는 ‘배움’을 한 것이다. 항상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인드를 가졌던 나 역시 취업 준비를 하면서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 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필자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왜 회사에 취직하고 싶은지, 회사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는지에 대해 생각할 시간조차 부족했다. 서류에 합격하고도 기뻐할 틈 없이 인적성 공부를 하며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남들은 어떻게 시간 내에 43문제나 푸는 걸까? 나는 정말 머리가 좋지 않은가? 나는 대기업에 갈 인재가 아닌가보다”라며 자기 비하를 하던 중 션 스티븐슨의 “You are enough”라는 말은 정말 큰 위로가 되었다.

“You are enough. You are not your condition. 당신은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조건이 아닙니다.”라는 셀 스티븐슨의 말을 정말 많이 곱씹었던 것 같다. 자존감이 떨어질 때마다 내가 문제를 풀며 계속해서 틀리는 것이 나를 설명하진 않는다는 생각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할 수 있었다. 필자의 가장 친한 친구는 필자를 “믿을 수 있는 든든한 친구”, 필자의 부모님은 필자를 “누구와도 바꾸지 않을 소중한 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 누구도 나를 “문제를 틀리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지 않을 만큼, 필자 역시 스스로에 대해 존중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내 존재 자체로 완전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필자는 본성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보기로 했다. 필자가 남들에 비해 더 경쟁력이 높을 것 같은 직무보단, 필자가 가장 흥미로워하는 직무는 무엇인지, 어떤 산업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 등 차차 정리를 하기 시작했다. 인적성 시험을 공부하기보단, 나에게 대해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논어의 첫 문장은 “학이시습지 불역열호(學而時習之 不亦說乎)”이다. ‘배우고 때때로 익힌다면 매우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말로,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상황에 맞게 익혀간다면 그 과정 자체가 즐겁다는 뜻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따르기 위해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을 알고 무엇을 알고 있지 못하는지 파악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끝없이 질문하고, 이해된 후에는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공자가 강조한 배움은 지식을 시험함으로써 순위를 매기고 등수로 평가되는 결과의 공부가 아닌, 완성된 자아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그러나 공부의 길을 인간으로서의 나를 더욱 발전시키는 자기 개발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며 행복하게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성균 논어 수업에서 얻은 ‘나’의 가치에 대한 ‘배움’을 생각으로 이어지게끔 하지 않고 ‘배움’에서 멈췄다면, 이 구절은 필자에게 큰 위로를 전해주지 못했을 것이다. 성균 논어 수업은 단지 논어에 대한 배움이 아니라, ‘생각’을 하게끔 하는 수업이다. 생각하고 정리할 시간이 부족한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더 큰 완전성, 즉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해 배움과 생각의 조화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지 고민해보아야 한다.

“성균色”, 인성을 말하다

2022학년도 제2학기	과목명: 성균 논어	요일/시간: 수요일 09시~11시
--------------	------------	---------------------------

학부(과, 전공) 학번: 기계공학부, 2017311322	성 명	한글: 권송혁 한자: 權松赫
담당교수: 임선영		검인

주제: 지(智) - 학이사(學而思) - 배움과 생각 사이
제목: 공자가 나에게

공자는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라고 하여, “배우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두울 것이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는다면 위태로울 것이다.”는 의미의 말을 하였다. 이를 세부 주제로서 에세이를 작성하라는 과제를 받았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공자의 말씀 그 이상, 그 이하도 떠오르지 않아 쉽게 첫 문장을 떼기 어려웠다. 그 이유는 ‘배우고 나서 그에 대해 생각하고 이를 내 것으로 만들고, 생각만 하지 말고, 배움과 함께 생각하면 깊이가 깊어진다’라는 말은 나에게 너무나도 뻔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그맨 이경규가 우스갯소리로 했던 “잘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습니다.”라는 말은 많은 대중의 공감을 샀고, 이는 배움이 없는 사람이 생각만을 가지면 그 깊이가 없다는 뜻을 많은 대중이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공감한다는 뜻이다. 그러다 나는 성균 논어 시간에 교수님께서 하셨던 공자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에 대해 떠올렸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같은 질문을 받아도 그 제자의 성격, 평소의 행동에 맞게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다른 방식으로 답을 해주었다. 그렇다면, 만약 내가 공자의 제자로서 공자에게 ‘진정한 배움은 무엇이고, 넓고 깊은 배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공자께서 “學而不思則罔하고 思而不學則殆니라”라는 답변을 해주었다면, 과연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일 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과연 배우고 이에 대해 골똥히 생각만 한다고 해서 자신의 것이 될까?’라는 것에서부터 의문이 생겼다. 가령 예를 들어, 열역학을 배우고, 문제도 열심히 풀고 이것저것 고민한 상태에서 열역학 관련한 실험 예비 레포트를 쓴다고 하여도, 결국 그 실험 과정과 실험에 사용된 이론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실험을 통해 직접 경험해본 이후, 결과 레포트를 쓸 때라는 것은 단 한 번이라도 실험 과목을 수강한 공과대학 학생이라면 공감할 것이다. ‘그렇다면 생각이 구체화 되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어쩌면 공자께서 나에게 주었던 답변은 배움 이후의 습득한 지식에 관한 생각, 생각의 바탕이 되는 배움, 더 나아가 실천의 중요성까지 의미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도달하였다. 더 나아가 실천을 통해 습득한 지식에 대해 즐거움을 느끼고 스스로 배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면 지(智)를 爲己之學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를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의 답변을 공자께서 나에게 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결국 나는 “學而不思則罔하고 思而不學則殆니라”를 “생각이 없는 배움은 무의미하고, 배움 없는 생각 역시 무의미하며, 이러한 생각을 구체화하고 배움을 견고히 하는 것은 실천이다.”라고 해석했다. 공자 역시 실천을 강조하면서, 공부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을 중요시하였고, 말보다는 실천이 앞서야 한다고 하였다. 실제로 배운 것을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경험은 배움의 필요성을 깨닫게 할 수 있고, 배움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작년 캐나다에서 교환학생을 하던 때, 헬스장에서 처음 만났던 선배는 내가 살면서 처음으로 만나본 학교 공부를 진정으로 즐기는 사람이었다. 같이 운동이 끝난 이후에도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수업과 수업 사이 비어있는 짧은 시간에도 공부하는 등 정말 잠깐의 시간만 주어진다면 바로 노트북을 꺼내 공부를 하던 사람이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 여느 대학교 3, 4학년들과 같이 어쩔 수 없이 많은 과제에 치여 과제를 해치우고 있거나, 취업을 위한 공부를 하는 줄만 알았다. 그런데 사실은 정말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찾아서 공부하고 있었고, 과제를 할 때도 장난감에 관해 설명하는 어린아이같이 나에게 이것저것 설명해주며 행복해했다. 그는 대학교를 휴학하고 자신이 원했던 외항사 승무원으로 3년 동안 근무하면서, 대학교 시절 배웠던 마케팅 전략이 승무원으로서 승객들을 상대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했고, 그 전략이 실제로 사용되는 것을 몸소 느꼈다고 말했다. 그 이후 마케팅 전략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 대학교에 복학했고, 현재 자신의 공부에 상당히 만족한다고 말했다 (그는 爲己之學 했다). 당시 이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 기억난다. 공부 그 자체를 좋아한다는 것도 신기했고, 그런 공부가 미래의 취업을 위한 것이 아님에 놀라왔다. 정말 공자의 말씀대로 대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자신 나름의 생각으로 정리하고, 기억하였다가 실천에 옮김으로써 지식의 사용에 대해 이해하고, 다시 배움으로 돌아온 경우이다. 이 사례를 보고 나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라는 생각과 함께, 나의 주변의 나와 같은 대학교 학생들은 왜 그렇지 못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나는 우리나라의 공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다. 진정한 배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실천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은 취업 이후 실무를 경험한 이후에 자신의 부족함과 배움의 필요성을 느껴 대학원을 진학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성균관대학교는 휴학을 6학기 할 수 있으나, 4학기 연속 사용 이후 복학해야만 하는 학칙을 가지고 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나 경험을 하기에, 혹은 실패를 하기에 부족한 시간일 수 있다. 외국 대학의 경우 대학교 입학 전, 여러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갭이어나 휴학을 장려하고 있고 대학교 학기 중 취직을 한 경우에도 별다른 제한 없이 몇 년이 지난 경우에도 졸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가진 학교도 상당수 존재한다 (실제로 USC에 재학했던 스티븐 스피버그는 37년 만에 복학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결국, 우리나라 학생들은 대학교에서 배웠던 지식을 활용할 시간을 얻지 못해 당연히 취업을 위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나라는 휴학을 취업을 위한 준비 단계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2015년 '캠퍼스 잡조이'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3, 4학년 휴학의 원인 중 45%가 "취업 준비"로 1위에 해당했고, 이는 대학 기간의 휴학이 취업을 위한 스펙 쌓는 기간으로 전략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들 역시 대학 시절 내 공백 기간 내에 달성한 스펙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이다. 배움을 위한 실천의 시간보다는 취업을 위한 이력서의 한 줄을 채우기 위해 대학생들이 휴학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휴학에 대한 사회적 부정적 인식과 대학생들의 부담은 보이지 않는 취업의 나이 제한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2021년 잡코리아의 기사에 따르면, 70.8%의 인사담당자들이 지원자의 나이를 고려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이는 취업을 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20대에 자신만의 도전과 취업 중 양자택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만들고, 도전을 한 학생들은 실패 이후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 것과 같다. 그 결과 취업난이 심각한 지금 학생들은 비교적 안전한 취업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게 보일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학생들이 자신의 배운 지식을 정말 자신의 것으로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배우고 생각한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고, 다시 학교에 돌아와 배울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취업을 위한 爲人之學이 아닌 爲己之學을 할 수 있으며, 배움을 통한 생각, 실천으로 깊어진 생각에 바탕을 둔 배움이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대학생의 적정한 공백 기간의 부재와 배움의 깊이에 대한 상실은 중·고등학교 시절에서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생각된다. 그 원인은 당연하게도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와 수능에 있

을 것이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8년도 통계에 따르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평균 수면시간은 5.4시간에 불과했다. 권장 수면시간인 8~9시간에서 상당히 못 미치는 수치이다. 대부분 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 11월에 있는 수능을 인생의 목표로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난이도와 엄청난 범위의 문제들을 풀기 위해 공부를 하며 학교와 독서실에서 하루 대부분을 소비한다. 반면 하버드, 스탠퍼드 등 흔히 전 세계 일류 대학이라고 불리는 아이비리그에서는 학생들을 SAT 성적으로만 줄 세우지 않는다. 위와 같은 학교들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관심 분야의 동아리를 직접 만들어 운영하는 경험을 요구하기도 하고, 미래의 전공과 관련 없는 축구나 테니스와 같은 스포츠 동아리에서의 활동을 요구하기도 한다. 결국 상대적으로 '공부'에 대한 시간을 줄이고 배웠던 것을 실천하는 경험을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학생부 종합 전형을 신설하면서 이를 일부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전공과 관련 있는 과학 동아리를 선택하는 대신 스포츠 동아리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risky), 대학교 진학 시, 스포츠 동아리의 경험이 과학 동아리의 경험보다 못하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학생이라면 모두가 이해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학생들은 5.4시간의 수면시간 이외의 시간을 모두 다른 활동이 아닌 공부에 매진하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대학교 시절의 휴학과 공백의 부재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실천과 생각을 위한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하지도 않고 시험이 끝나면 날아가 버릴 심화된 수학 공식과, 과도한 단순 암기는 학생들이 배운 지식을 활용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 시간을 주지 않는다. 결국 취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고등학생들 역시 생각을 가지는 시간 없이, 수능을 위해 배운 것을 그대로 읊는 것에 집중하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의 의미대로 배움과 생각 중 하나에 결핍이 있는 경우에는 ‘진정한 배움’이 성립될 수 없다. 진정한 배움을 자신의 것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이 필요하고, 생각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실천이 필요하다. 위 모든 것을 하기 위해 우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배움에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 이외에도 우리는 배웠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과 함께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배움과 실천을 통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생각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러한 공백의 시간과 여유가 배움과 실천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고, 배움과 생각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사회적 인식의 변화 교육제도의 개선은 학생들에게 ‘진정한 배움’을 위해 필수적이다. 다만 그 전에, 개인의 단계에서도 변화하는 방안이 있다. 이는 ‘앎’이 ‘삶’이 되고, ‘삶’이 ‘앎’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실생활에서 배우고 배운 것을 활용하며, 생각을 다지는 것을 삶으로 하는 것이다. 진정한 배움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 역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배움의 의미를 이해하고 깊이와 넓이를 가지게 되면 사회가 변하게 되고, 앞서 언급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역시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 더 급한 속도로 많은 사람이 진정한 배움에 대해 이해하고 공자가 말한 爲己之學 역시 할 수 있을 것이다.

“성균色”, 인성을 말하다

2022학년도 제2학기	과목명: 성균 논어	요일/시간: 수요일 13시~15시
--------------	------------	--------------------

사학과(전공) 학번: 2020315673		성명	한글: 김 동 호 한자: 金 東 胡
담당교수: 임 홍 태	검인		

주제: 지(智) - 학이사(學而思)-배움과 생각 사이

제목: 어떻게 배우고 익혀야 하는가?

몇 달 전 가족과 식사를 하면서 가벼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최근 뉴스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말을 꺼냈는데 그 주제에 대해 동생은 별로 관심이 없는 모양이었다. 시사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는 내 말에 돌아온 동생의 답변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내가 그걸 왜 알아야 해? 나는 거기에 관심도 없을 뿐더러 그걸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지?” 알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알아봐야 쓸데없는 것 아니냐. 분명 무언가 잘못된 답변이라는 것을 느꼈지만 나는 그의 논리에 반박할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우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하는가?

비단 이와 같은 일이 한 사람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 방식은 과연 올바른 배움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한다. 교육 과목 중 역사 과목을 예시로 들어보겠다. 역사는 과거를 되돌아봄으로써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인문학의 중요한 기둥 중 하나이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교육과정의 역사 교육은 어떠한가? 중고등학교 학생이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유명한 인물의 이름을 외고, 행적을 외우며, 어떤 사건이 어떤 날짜에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암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암기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오직 시험을 잘 보기 위함이다. 현행 교육 체계에서 역사 시간에 배운 지식들은 그저 점수로 등수를 분별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며 그렇기에 시험이 끝나면 더 이상 쓸모가 없다. 때문에 학생들은 그저 외우기만 할 뿐인 역사 공부를 지루해하고, 실생활에 어떤 쓸모가 있는지도 알 수 없으며 그저 의무적으로 공부하고 있을 뿐이다. 공자께서 “날마다 배우고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논어』, 「학이」)라고 하셨던 말씀이 대한민국 학생들에게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이다. 어째서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배우는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된 것일까?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역사상 그 어느때보다도 많은 ‘배움’을 접하고 있다. 만 7살에 초등학교를 가서 중학교까지 9년의 법정 의무교육을 받으며 거의 모든 학생이 고등학교까지 진학한다.

12년이란 시간이 거의 온전히 공부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공자께서는 결코 배우는 것에만 의의를 두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치 않으면 맹목적으로 되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논어』, 「위정」) 그는 배움은 단순히 배움에 그쳐야 할 것이 아니라 배운 것에 대한 사상이 필요하다고 하셨다. 즉 배운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스스로 생각하고 배운 바에 비추어 자기 자신을 새롭게 갈고 닦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은 이 사상이 부족하다. 때문에 학생들은 맹목적으로 지식을 전수받을 뿐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학생들로 하여금 진정한 배움의 길을 찾도록 만들 수 있을까?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린 학생들은 돌아와서는 효도하고 나아가서는 공경하며, 신중하고 믿음직스러우며, 널리 사람들을 사랑하되 인한 사람과 친해야 하니 그러고도 남은 힘이 있거든 글을 배워라.”(『논어』, 「학이」) 우리는 글공부 즉 책을 읽는 것만을 공부라고 여기지만 공자께서 생각한 공부는 효孝, 그러니까 가정에서 인仁을 실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덕德을 먼저 갖추어야 책에 담긴 지식을 추구할 수 있는 법이다.

20세기 초 중반, 대한민국은 식민지 지배와 전쟁으로 인해 세계 최빈국으로 떨어졌다.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 와중에는 덕德의 추구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마련이다. 맹자 역시 다음과 같은 말로 이 점을 지적했다. “선비는 일정한 생업[恒産]이 없어도 몇몇한 마음[恒心]을 지닐 수 있다. 이에 반해 일반 백성들은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 한결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없다.” (『맹자』, 「양혜왕상」) 그래서 우리의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는 당장 먹고 살기 위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지식들을 추구해왔다.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는 당당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교육은 아직도 바뀌지 못했다.

대한민국에서 덕德을 함양하기 위한 인문학은 굉장히 경시되고 있다. 고등학교 학창 시절 자주 들었던 말이 있다. “문과로 가면 나중에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러니?” 이 말은 우리가 스스로를 정진하기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생업을 위한 기술을 연마하는 수단으로서 배우고 있는 것임을 드러낸다. 물론 잘 살기 위해 배울 수도 있다. 하지만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상이 없는 배움은 오직 부富를 거머쥐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기 일쑤이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오직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곳곳에서 사기 행위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고 며칠 전 있었던 SPC 노동자 사망 사태나 공사 인부 추락 사건 등 돈을 아끼기 위해 인명을 경시하는 행위가 횡행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인仁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에 힘쓸 필요가 있다. 옛 선비들이 예禮, 악樂, 사射, 어御, 서書, 수數 라는 기본 소양을 반드시 갖추어야

했음을 기억하자. 우리도 지금껏 소홀히 해왔던 도덕, 철학, 역사 그리고 체육까지도 배움의 기초를 닦는 필수과정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은 배움과 생각을 실천할 차례이다. 우리는 어떻게 배워야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 논어를 읽었다면 처음 동생과 나누었던 대화에서 고칠 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관심 없는 분야는 배울 필요가 없지 않은가?” 나는 배움에 있어서 하나의 길에 매몰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한다. 현대 사회는 고도로 분업화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른바 ‘전문가’가 되는 방향으로 배움을 이어갔다. 하지만 한 우물만 깊이 파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다른 여러 지혜들을 경시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공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군자는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그릇이 아니다.” (『논어』, 「위정」) 즉, 사람은 그릇과 같이 특정 목적에 따라 자신을 한정 짓지 말고 다양한 상황에 맞추어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그에 따라 적절한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즉 배움에 있어서도 시증時中을 추구해야 한다. 다행히 요즘 추세는 융복합적 교육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교육 제도 역시 마냥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시대에 맞춰 개선되어 가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배움이 있었다면 실천을 해야 한다. 공자는 공부에 대해 “널리 배우고 깊이 있게 질문하며 신중하게 생각하고 명료하게 분별하여 독실하게 행할 것” (『중용』)이라고 말씀하셨다. 치우치지 않게 공부하고, 그것을 질문해서 내가 ‘아는 것’으로 만든 다음 그것을 스스로에게 맞추어 깨달은 다음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학學과 사思의 조화이다. 앞서 이야기했던 역사 교육에 대한 주제로 다시 예시를 들어보자.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이 일본에 병합되어 식민지가 되었다.” 단순히 이 문장을 외울 뿐이라면 이는 “경술국치가 어느 해에 일어났는가?”라는 시험 문제에 답하는 것 외에는 전혀 쓸모가 없다. 하지만 만약 이것에 대해 궁금해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왜 조선은 일본을 물리치지 못했는가?” 스스로 가진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 저절로 공부를 하게 된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조선에 비해 강력한 군대와 경제력을 보유하고 이를 통해 조선을 식민화했음을 알았다. 그렇다면 그 다음 의문이 꼬리를 문다. “일본은 어떻게 조선에 비해 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얻을 수 있었나?”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벗어나 경제학, 군사학, 정치학 등 여러 다른 분야를 공부하게 된다. 이어서 조선은 일본과 다른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내 나름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다시 책의 내용과 비교하면서 견문을 넓힌다. 최종적으로 당시 세계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던 조선의 면면을 속속이 알아 그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는다. 자신은 세상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고 그것을 앞으로의 삶에서 실천한다면 배움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바이다. 이처럼 학學과 사思는 조화는 모름지기 배우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에 달렸다.

어느 날 저녁 식사 때 동생이 내게 했던 질문으로 돌아온다. “내가 그걸 왜 알아야 해? 나는 거기에 관심도 없을 뿐더러 그걸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지?” 논어를 배우고 그것을 생각해본 나는 이제 대답할 수 있다. “세상 모든 지식은 쓸모가 없다. 하지만 세상 모든 지식은 또한 쓸모 있기도 하다. 모든 것은 지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 한 줌의 단어라도 그것으로 깨닫고 자기를 계발할 수 있다면 천금과 같으며, 수만 자의 명문이라도 깨닫지 못하고 실현치 못하면 길거리의 돌이나 다름이 없다. 우리는 언제나 호학好學의 자세로 모든 것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가져야 한다.”

“성균色”, 인성을 말하다

2022학년도 제2학기	과목명: 성균 논어	요일/시간: 월요일 15:00 - 16:50
--------------	------------	---------------------------------

학부(영어영문학과) 학번: 2021312142	성 명	한글: 이슬기 한자: 이슬기
담당교수: 정병섭		

주제: 지(智) - 학이사(學而思) - 배움과 생각 사이
제목: 생각중심공부(평범했던 일상도 특별해지는 순간)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새로운 지식을 습득함과 동시에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스스로 곱씹어봐야 한다) 이 구절은 특히 2년째 대학 생활을 하고있는 나에게 크게 와닿는 말이다. 왜냐하면 나는 작년 2학기까지만 해도 정확히 그 반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1년을 보내면서 몸소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교훈을 얻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최소 1.5배 더 많은 시간을 이해하고 나만의 언어로 정리하는 데 할애하고 있다. ‘체화의 중요성을 진작에 깨닫고 살았다면 과거에 시간, 에너지 낭비없이 흑역사를 쓰지 않아도 됐을텐데’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직접 경험한 덕분에 현재 성균 에세이에 쓸 이야기가 많다는 걸 깨달았다. 오히려 다행이다.

이 구절을 읽자마자 바로 떠오른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작년에 수강한 ‘스피치와 토론’의 토론 활동이다. 토론은 내가 준비한 걸 발표한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즉석 질문에 대한 답변, 반론 준비 등 임기응변과 엄청난 사전준비가 필요한 활동이었다. 당시 나는 ‘스피치와 토론’ 강의에서 마지막에 하는 토론이 점수 비중이 가장 커서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처럼 토론 수업시간에 랜덤 조장으로 선정되고 정신없이 토론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주기적으로 팀원분들과 만나 자료조사하고 입론을 준비했다. 겉으로 보기에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사실 나 스스로는 알고 있었다. 자료조사까지는 열심히 했지만, 나는 분명 그 자료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 않았다. 입론 양식의 공백을 채우기 급급했고 어제 조사한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찾아 구글문서에 공유했다. 그렇게 자료조사만 하다가 토론 바로 전날이 되었다. 주변에서 “엄청 열심히 준비했잖아. 잘할 수 있을거야”라며 격려의 말을 해줬지만 나는 그 당시 계속해서 불안해했다. 그때는 왜 이리 불안한지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하다. 토론은 자료조사한 내용의 최소 80% 이상은 내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하는데 나는 10%도 담지 않고 간신히 내용을 이해만 하고있는 정도였기 때문이다. 불안한 마음에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새벽 4시까지 버티며 토론자료를 보다가 잠들었다. 그리고 토론 당일날 팀원분들과 밝게 “화이팅!” 응원의 말을 건네고 지정된 자리에 앉았다. 입론을 맡아 그날 내게 주어진 역할은 입론 대본을 발표한 뒤 상대팀의 주장에 대한 질문, 그리고 우리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었다. 저 활동들 중에 가장 어려울 것 같은 부분은 우리팀 질문에 대한 답변일 것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내가 흑역사를 쓴 것은 상대팀에게 질문하는 상황에서였다. 내가 주도권을 쥐고 반박해야 하는 바로 그 상황에서 말이다. 첫 번째 질문을 한 뒤, 나는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다. 내가 즉석 질문을 던지려면 해당 부분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데 나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기에 간신히 이해하는 상태였기에 오히려 내가 당황한 상황이 된 것이다. 그렇게 마이크를 들고 한 2분간 정적이 흘렀다. 첫 번째 질문을 끝으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옆에서는 팀원분이 계속 말해도 된다는 제스처를 취했다. 다시

이해해보려고 종이를 들었는데, 평소 숙지하는 경험을 안 했던 사람이 갑자기 잘 이해될 리가 없었다. 아마 토론 수업을 통틀어 자신이 반론하는 시간에 아무 말 없이 시간을 보낸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로 흔치 않을 것이다. 팀원분들에게 사과한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내 머리는 뭐가 문제일까’ 하는 생각을 했다. 정말 멍한 채로 E하우스 기숙사로 걸어갔던 게 아직도 생생하다. 그렇게 한참을 후회하다가 문득 문제집 출제위원들에 대해 들은 얘기가 떠올랐다. 그분들은 문제를 내기 위해서 해당 부분을 완전히 숙지한 뒤 푸는 사람보다 2배 이상의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숙지는 어떻게 하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다. 확실한 건 1번 의미를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다. 몸소 체험해서 이 부분만은 확실했다. 그리고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다. 유일하게 공부를 수월히 해냈던 중학교 시절을 되돌아보는데 필기하고 있는 내 모습이 생각났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을 다 받아적을 수는 없었기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질문하고 이해한 내용은 곧장 교과서 한편에 나만의 언어로 요약하곤 했다. 그리고 시험 직전에는 내 글씨로 쓴 요약본을 보고 마무리 정리를 했었다. 이미 해결책을 알고 있었는데 돌고 돌아 이제야 떠올리게 된 것에 그 당시에는 허무함이 밀려왔다. 제대로 시간 낭비를 한 기분이었다.

전에 아인슈타인의 명언 중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으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본 적이 있다.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그것을 나만의 언어로 짧게 정리할 수 없다면 ‘이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동양의 논어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공부에서 스스로 사유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처음 들었을 때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걸 진짜 실천하는 게 결코 쉽지 않으니 끊임없이 시도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의미를 다시 생각해본 다음에는 그걸 기록해두는 것 또한 정말 중요한 것 같다. 그래야 다음에 볼 때 이해하는 데 드는 시간을 단축하고 자신의 언어로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참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부할 때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의미를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을 들으면 할 일이 더 많아져 지루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근데 직접 해보니 이러한 방법이 오히려 그 반대로 공부 자체를 재밌게 느껴지도록 한다는 걸 깨달았다. 언제부터인가 시간에 쫓기는 공부를 하다 보니 이해보다는 단순 암기가 더 효율적인 방법처럼 여겨져서 실전 공부를 할 때는 의미를 다양한 방식으로 곱씹어 보고 내 방식으로 해석해보는 방법 자체를 시도조차 안 하게 되기 때문이다. 직접 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는 말처럼 생각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진 뒤 접근하는 방법을 여러 번 경험하다보면 이것만큼 효과적인 배움은 찾기 어렵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배운 내용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보기 위해서는 몰입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일정 시간동안 내 앞에 보이는 텍스트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상태를 말한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부한다는 말은 몰입해서 지식을 완전히 체화할 때 가능한 경험인 것 같다. 사실 나는 처음에 저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부할 수 있지? 내 집중력은 15분이면 끝나는데’ 하는 생각을 했었다. 정말 다른 세계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었는데 한 결정적 사건을 통해 나는 생각 중심 공부를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내가 올해 3월부터 시작한 ‘우린, 유독(유생들의 독서모임)’에서 겪은 일이었다. 모임에서 책 ‘몰입: 미치도록 행복한 나를 만나다’라는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로 해서 처음 읽게 되었는데 정말 읽으면서 머릿속에 ‘유레카’ 라는 단어가 떠나질 않았다.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라’ 이 생각이 나를 지배했던 길도는 공부 방식에 싫증을 느끼던 시기에 딱 저 책을 소개받아 읽게 된 것은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행운 같은 일이었다. 책을 읽으며 몰입 공부를 해보고 싶어졌고 책을 읽고 난 뒤부터 나는 진도에는 연연하지 않고 한 문장, 단어를 신중하게 읽고 의미에 대해 스스로 물음을 던지며 이해하는 공부를 시작했다. 이때를 기점으로 몰입과 생각을 기반으로 한 공부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는데 ‘공부’라는 것 자체에서 긍정적인 감정도 느낄 수 있다는 걸 제대로 알 수 있었다. 그렇게 새로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온 정신을 집중하고 의미를 온전히 이해했을 때,

찾아오는 성취감과 행복감이 정말 대단하다. 성균논어 강의 시간에 정병섭 교수님께서 ‘공부는 수단이 아닌 목적 그자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그 말을 들으며 엄청 공감했던 기억이 있다. 더 이상 공부는 정말 하기 싫지만 내 진로를 위해서 해야하는 것이 아닌 그것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 체력을 기르고 주변 환경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내 삶의 원동력 중 하나가 공부를 통한 행복감일 정도로 생각을 기반으로 한 공부는 매우 중요하고 귀중한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올해를 기점으로 공부에 대한 관점을 달리하니 수업을 대하는 태도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그 덕분에 대학교 2학년 초창기에 내 취미 겸 흥미 분야를 찾을 수 있었다. 영어영문학과로 처음 전공진입하고 들었던 “영어구조의 이해”라는 영어학 수업은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와도 같다. 영어학은 특히 엄청난 이해와 숙지를 필요로 하는 과목이다. 3학기 수업에서는 통사론(theory of syntax)을 공부했는데 해당 분야에 대한 원칙을 암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엄청난 종류의 예문, 계속해서 개정되는 규칙들을 배우고 적용하는 일을 반복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학문이었다. 처음에는 수업시간을 제외하고 예습+복습시간으로 일주일에 최소 5시간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영어학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그런데 한 번 시작하는 것이 어렵고 막상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 채 몰입하게 되는 분야였다. 그렇게 한번 흥미를 느끼니 나중에 영어학은 시험공부를 하다가 지루해지면 찾는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되어있었다. 꾸준히 지식의 의미를 파악하고 숙지하는 공부의 가치를 이 경험으로 확실히 깨달았다. 4학기에는 수강신청을 실패해 아쉽게도 ‘영어구조의 이해’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하지는 못하지만, 생각을 기반으로 한 공부의 즐거움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기 위해 전에 배웠던 영어학 개념을 복습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배움의 즐거움은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에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나만의 지식 체계를 형성하는 것에 있는 것 같다. 삶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흥미분야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준 생각 중심 공부는 나에게 있어서 정말 의미 있는 선물과도 같다.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라는 말이 더 알려져서 생각을 중심으로 한 공부의 즐거움을 많은 사람들이 발견하고, 행복한 시간들로 하루하루를 채워갔으면 좋겠다.

“성균色”, 인성을 말하다

2022학년도 제2학기	과목명: 성균 논어	요일/시간: 목요일/15:00~16:45
--------------	------------	------------------------

경제학과 학번:2021312940	성 명	한글: 고서현	한자:高瑞絃
담당교수: 함윤식		검인	

주제: 지(智) - 학이사(學而思) - 배움과 생각 사이
제목: 배움에 생각이 함께하고, 또한 생각에 배움이 함께하며... -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고등학교 1학년 사회 수업 시간, 선생님께서 “여러분은 난민 수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고 물으셨다. 당시 9시 뉴스는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출신 난민들의 이야기를 한창 보도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국민 중 어떤 사람들은 ‘이들’을 어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대국민 설득에 힘을 실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당장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난민 신청 허가 폐지 청원’은 5일 만에 그 동의 수가 무려 22만 건을 돌파했다. 우리나라를 찾아온 난민들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의 문제에 전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던, 난민 수용에 대한 찬반양론이 그야말로 사회를 가득 채웠던 때였다. 나는 이 청원에 ‘동의’ 버튼도, ‘비동의’ 버튼도 누르지 못한 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도대체 찬반 중 무엇을 말할지에 대해 고민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친구들도 나처럼 다들 눈치만 보고 있었고, 그때 교실에 있던 24명의 학생 중 그 누구도 선생님께서 던지신 물음에 대한 자기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였다. 그저 서로의 눈만 말뚱말뚱 바라보며 머쓱한 웃음을 내는 사이, 침묵의 시간이 흘러갔다. 이제 선생님께서도 더 이상 우리의 생각을 묻지 않으셨다. 난민 문제라는 주제가 너무나도 새로워서, 혹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건이라서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갈비뼈가 다 보이도록 삐쩍 마른 난민들의 모습을 끊임없이 TV에서 보아 왔고, 불과 몇 분 전 교과서에서 3살의 난민 아이가 해변에 쓰러져 숨을 거둔 사진을 보며 모두가 가슴 아픈 탄식을 내뿜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느끼기도 했지만, 막상 난민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큰 화두가 되고 찬반 양측이 팽팽히 맞서니, 내가 옳다고 생각해왔던 인(仁)한 마음가짐이 잘못되었나 하며 혼란스러운 것이었다. 더욱이 언론에서는 예멘인들의 입국에 브로커가 개입되어 있다는 가짜 난민 문제를 수면 위로 대두하고 있고, 범죄나 안전 이슈를 근거로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국민이 많아지니, “난 아직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하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만 했다. 그동안 사회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하고 배워왔던 난민 문제는 단순히 ‘난민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 사회는 난민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는, 정말로 뻔하기 그지없는 것이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많은 사람이 집을 떠나도록 해 난민들이 생겨났고, 그렇기에 우리는 이들이 스스로 본국에 돌아가고자 하기 전까지, 또는 이곳에서 영구적으로 머문다면 꾸준히, 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 너무나 당연하게 반복되어 이제는 외워버린 교과서 속 이야기다. 이처럼 나의 머릿속에는 학교에서 배운 학(學)만이 가득 차 있었고, 사(思)가 들어갈 자리는 없었다. 이에 나는 네모난 교과서를 책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한 장씩 책장을 넘기며 인간으로서 가지는 당연한 감정에 마음 아파할 뿐. 딱 그 정도였다. 수업이 끝나자 난민 문제에 대해 어떠한 생각도 말하지 못한 나에게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사람은 무엇이 옳은지, 또 어떻게 해야 마땅한지에 대해 사유할 수 있는 선천적 능력을 지니고 있고, 그렇기에 나는 난민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을 느꼈다. 하지만 배움만이 존재할 뿐 깊은 생각은 부재하였기에, 그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다양한 자극이 다가왔을 때 내 마음의 기능을 충분히 다 하지 못한 것이다. 이토

록 난민 문제를 자주 접하기는 했으나 깊이 생각해보지 못한 과거를 돌아보며, 이제는 사유를 얻기 위해 스스로 생각해보자고 다짐했다. 마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역시나 나에게 떠오르는 도덕적 감정은 측은지심(惻隱之心)이었음을 자각하였다. 그리고 이 깨우침을 친구들과 나누고 싶어졌다. 더불어 나의 친구들은 이 문제에 대해 나와 같은 부끄러움을 느꼈을지,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져서 쉬는 시간에 난민 수용에 대한 친구들의 생각을 묻는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동안 학교에서 배워온 게 있으니 인간적 공감을 표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은 나의 오산이었다. 투표에 참여한 친구 중 절반 이상이 당시 뜨거웠던 여론처럼 ‘난민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뜻을 밝혔다. 예상을 뒤엎는 결과에 그 이유를 되물었다. 대답의 첫 마디는 약속이나 한 듯이 “요즘 뉴스 보면”으로 시작했다. 당위에 관한 생각이 스스로에게서 저절로 나오지 않고, 여론이라는 외부로부터 스며들어왔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웠다. 난민 수용에 대해 찬성은 옳은 것이고 반대는 그른 것이라고 단편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스스로 논리적인 추론 과정을 거쳐 합당한 근거를 통해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친구들이 다양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얻고, 이를 통해 ‘학(學)과 사(思)’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고 싶었다. 일단 내가 먼저 난민 문제를 제대로 알아봐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했다. 먼저 세계의 난민 문제 사례들을 통해 그들이 난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위기에 처한 난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당연한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난민 수용에 대한 찬반양론이 거센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봤다. 친구들이 난민에 대한 무조건적인 혐오를 버리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설득하려면,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반대론자들이 우려하는 난민 수용의 악용 문제나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과 부담들이 다가왔다. 그리고 이로 인한 갈등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지의 문제를 직시하게 되었다. 난민에 대한 수집한 이러한 지식을 종합하여, 교내 영어 프레젠테이션 대회에서 친구들에게 난민 문제를 알렸고, 드디어 ‘난민 문제,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한 나의 목소리를 스스로 내게 되었다. 또한 난민 문제에 관한 실제 사례와 논리적인 근거들을 찾음으로써 이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공존할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나의 견해 또한 세워볼 수 있었다. 나는 난민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국민도 난민이었던 역사를 지니고 있다는 점과 우리가 언제 다시 난민이 될지 모르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깊이 다가왔다. 이에 난민이라는 대상에 나를 미루어보니, 난민 문제는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느껴졌다. 즉 서(恕)를 통하여 난민이 된 이들의 감정을 조금이나마 공감하게 되었고, 전부터 끊임 없이 떠오르던 난민에 대한 측은지심과 태도를 스스로 합당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난민에 대한 나의 지식이 불분명하여 자꾸만 거친 물살에 흔들리고 그물 사이로 빠져나갔다. 그리고 이 때문에 실제 사회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자, 나만의 생각이 없는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나는 인(仁)한 사람이 아닌가?” 되뇌이며 불안해했다. 그러나 배움에 이어서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거치며, 난민에 대한 단순한 지식이 나만의 깊은 뜻으로 분명해졌다. 수업 시간의 배움(學)이 깊은 고민과 추론을 거쳐 마침내 생각(思)이 되었을 때, 지식이 빛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한 순간이었다.

“學而不思則罔(학이불사즉망): 배우기는 하지만 생각하지 않으면 어두울 것이다.”

난민 문제에 대한 뜻을 가지게 된 후, 고등학생이라는 위치에서 선(善)을 실천하기 위하여 내가 목표로 삼을 만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나의 최선은, 수업 시간에 난민 문제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교내 대회를 통해 이에 대한 물음을 던진 것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과 깨달음을 SNS에 공유하는 것이었다. 한 국제인도주의단체에서 나의 경험에 관심을 보여왔고, 이에 나는 교내 영어 프레젠테이션 대회를 위해 준비한 발표 대본과 PPT, 연습 영상 등을 나눔으로써 또 다른 행(行)의 발걸음을 떼게 되었다. 세계 각빈 지역의 사람들이

기아와 빈곤에 맞서 싸우며 그들 스스로 삶을 회복시켜 가도록 돕는 국제인도주의단체 측에서는, 난민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고등학생이 새로웠나 보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해마다 열리는 ‘세계기아 리포트’ 행사의 특별 연사로 나를 초청해주셨다. 난민에 대한 고등학교 1학년의 시선이 큰 울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손을 건네주셨다. 나는 지금껏 경험한 학교라는 공간을 넘어서 큰 무대에 서게 되어 기쁘기도 했지만, 공식적이고 규모가 있는 자리이기에 사실 부담이 훨씬 컸다. 어찌 됐든,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고로 잘 활용해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시작부터 의욕에 불타올랐던 것 같다. 그러나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쉽지 않았다. 나의 발표에는 5분을 배정받았다. 하지만 대본 수정을 거듭해도 난민에 대한 정의부터 난민 수용에 대한 현재의 찬반양론, 학생인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 등의 내용을 모두 5분 안에 담기란 불가능했다. 지금껏 얻은 난민에 대한 정보들과 이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넘쳐났는데,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발표 대본을 쓰고 지우기를 수십 번 반복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과연 난민에 대한 정보를 그 자리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교내 대회에서 한 발표를 그대로 전하려 했던 것이 잘못되었다고 느껴졌다. 학교에서의 청중은 친구들이었지만, 행사의 청중은 나보다 훨씬 더 깊은 지식을 가진 NGO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에 주최 측에 사전등록을 한 참석자의 성격 자료를 요청해 살펴보고, 그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올 수 있는 관점을 던지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고등학생인 나를 초청한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 고민해보며, 나에게서 정답이 아닌 생각을 듣고 싶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내 생각(思)을 상황에 맞게 고치는 과정에서는 또한 배움(學)이 필요했다. 공개 연설인 만큼 데이터와 이미지 출처를 보강하며 객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었고, 현장에 이슬람권 청중들도 있는 만큼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발언은 해당 문화권 입장에서 고려하여 수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만약 이 과정에 있어 배움이 없었다면, 같은 학교 친구들로 구성된 청중에게는 맞더라도 행사에서 나의 발표를 듣는 전문가 청중에게는 맞지 않은 이야기가 되었을 것이다.

“思而不學則殆(사이불학즉태):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내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생각에 배움이 근간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다. 또한 현장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난민 문제에 관한 관심을 촉구하는 일에는 전문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도적 차원에서 감정적으로만 자기 생각을 호소하는 것에서 나아가, 배움을 통해 비로소 전문성을 갖추었을 때 인(仁)한 행위에 대한 설득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나의 경험은, “배움에 생각이 함께하고, 또한 생각에 배움이 함께하며” 나아갔기에 보다 성공적일 수 있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난민 문제에 대해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못했던 내가, 이성적 사유를 통해 지식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었다. 하고 싶었던 말이 정리되지 않았던 내가, 끊임없이 배우며 현실에 대처할 수 있었다. 「논어」에서 나오는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이라는 구절을 듣자마자 이때를 바로 떠올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공자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지 않나 싶다. 제대로 된 지(知)의 가치에 대해 확실히 알게 된 나는, 궁극적으로 지행합일(知行合一)을 이루기 위해 배움(學)과 생각(思)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대학 공부를 하며 배운 지식을 내 삶과 연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또한 내 생각을 어떠한 배움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을지에 몰입하며,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실천을 반복하여 행하며... 마침내 배움과 생각 사이에서 즐거워하는 나를 기대한다!

“성균色”, 인성을 말하다

2022학년도 제2학기	과목명: 성균 논어	요일/시간: 화요일 9시~11시
--------------	------------	--------------------------

학부(과, 전공) 학번:	성 명	한글: 고윤범 한자: 高允凡
담당교수: 홍 린 검인		

주제: 지(智) - 학이사(學而思) - 배움과 생각 사이
제목: 명작을 만드는 방법

나에게 공부란 얼마나 하는지보다는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였다. 초등학교 때는 여러 학원을 다녔는데, 중학교 들어서면서 모두 그만두었다. 문예를 공부하고 싶어 예술고등학교 문예창작과에 진학했는데, 재능이 없었다. 글이 써지지 않는 날이면 글을 쓰지 않았는데, 일년 중에도 글을 써간 날이 손에 꼽았다. 3학년부턴 수능 공부를 시작했다. 나는 여전히 사교육에 기대고 싶지 않았다. 서점에서 교재를 사서 집이나 도서관에서 공부했고, 그렇게 쓴 돈이 월 3만원을 넘기지 않았다.

이렇게 공부한 이유는, 내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만큼만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었다. 학생이 공부에서 목적을 찾기란 쉽지 않다. 나 역시 그저 친구들과 놀러고 유치원에 다니다가, 학교에 가야한다니 학교에 가고, 그렇게 어물쩍 커버린 어린이들 중 한 명이었던 것이다. 막연한 직업관 몇 개는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위해 무엇을 얼마나 해야하는지 몰랐다. 그 직업을 내가 얼마나 원하는지조차 몰랐다. 목적이 없었던 것이다.

공부는 수단일까, 목적일까? 뭐가 됐든 수단일 수밖에 없다. 좋은 직업을 갖고 돈을 많이 벌고자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도 수단이고, 책을 읽고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길 좋아하는 지식인들도 어쨌거나 즐거움을 위한 수단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다. 요건은 그 수단의 본질이 얼마나 목적에 부합하느냐일 것이다. 배움과 탐구에서 즐거움을 얻는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 배움과 탐구보다 적합한 수단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직업이나 돈을 목적으로 입시를 준비한다면,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수단인지 아닌지는 개인 상황에 따라 갈리겠지만, 최소한 즐거운 과정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나는 누가 시키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공부를 하기로 했다. 다시 말해, 게으르게 했다.

그렇게 대학생이 되어 살다가, 3학년이 되어 처음으로 과 MT를 갔다. 명문 고등학교에서 진학해온 후배가 있었다. 그 후배는 자기 고등학교가 얼마나 힘든 곳이고, 어떤 식으로 하루가 흘러가는지를 말해주었다. 학생들을 성적에 따라 분류하고, 경쟁시키고, 급을 나눠서 진학할 학교를 정한다는 말을 듣고 나는 놀랐다. 소설이나 드라마에 나온 입시문화가 허구가 아니었던 것이다. 나는 내가 학창시절을 편하게 지냈다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얼마나’ 편하게 지냈는지는 느껴지 못해왔다. 비교할 상대가 없었으니까.

그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입시 커뮤니티나 학교 에브리타임에서 그토록 열을 올리는 서열 나누기가. 문과와 이과와 의과, 또 그 과 안에서도 개별의 과끼리 서열을 나누고 등급을 붙이고, 사람의 급을 나누곤 하는 그 모든 일들. 많은 학생들이 이미 그 비슷한 것들을 거쳐왔고, 거기에 익숙해져있었던 것이다.

공부라는 것이 이미 많은 학생들에게 잘못된 첫인상을 남겨온 느낌이었다. 학교의 문학 교육에 대한 흔한 비판과 비슷하다. 시나 소설을 지나치게 분석적이고 작가주의적으로 접근하여, 정작 문학을 즐기는 법은 배우지 못한 학생들이 문학을 기피하게 된다는 비판. 것처럼 입시는 학생들에게 공부를 즐기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못했다.

대학에 와서도 공부를 공부로 바라보는 학생을 본 기억이 드물었는데, 그것이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다. 에브리타임에서 강의평가를 보면 절반 이상은 시험이 얼마나 편하고, 학점을 얼마나 잘 주느냐에 관한 것이었다. 특히 평가가 좋은 강의의 경우 그 이유를 보면 항상 저런 식이었다. 정작 흥미로운 것들을 가르치는 강의, 열정있는 교수의 강의는 상대적으로 애매한 평가를 받았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차라리 기업에서 취업훈련소를 운영하고 그 학교를 수능성적순으로 입학하게 낫지 않나 생각했다.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진정 탐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소위 '대학원에 갈 인재'라며 별종 취급을 당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수많은 교양과 지식들은 단지 잊혀지기 위해 가르쳐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잊혀지기 위한 교양을 배우는 학교가 사람들을 서열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진실로, 공부는 즐길만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별종 취급을 당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게임을 좋아한다고 하면 쉽게 수긍한다. 또는 요리를 좋아한다고 하면 이해한다. 소설이나 시 읽기를 좋아한다고 말하면, 비록 그런 사람이 갈수록 적어지는 현실이긴 하나, 보기 드물다는 취급은 받아도 별종 취급은 안 당한다. 심지어 자신의 몸을 확대하다시피 하는 운동이나, 지나치게 정적이라서 하다가 잠들 수 있는 뜨개질도 이해를 받을진대 공부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공부를 싫어하도록 학습받아왔다.

즐기는 공부가 왜 필요한가? 쌍곡선의 적분법같은 것을 배우는 과정이 왜 즐거워야 하는가? 사람들이 탐구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 모르는 것을 궁금해하고,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인격함양으로 직결된다. 자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 사회문제나 도덕적 논제에 관해 깊게 생각해보고 그 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모두 탐구심을 요하는 일이다.

사회에서 그런 탐구심이 결여되었을 때, 탐구를 하고 깊게 생각해보는 것이 특이하고 우스운 일이 되었을 때 사회적 논의는 퇴보한다. 대마초의 유익성과 유해성, 사회적 맥락과 다양한 관점들을 알리는 노력 없이 대마초에 대해 찬반논쟁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그것은 금세 자신에게 쥐어진 한응큼 감정을 휘두르는 싸움으로 변질될 것이다. 대마초가 아니라 동성애, 사형, 여성 정책, 경제 정책, 무엇이랄지. 이런 사회적 논의에는 골 깊은 감정이 개입하여, 가장 사려깊은 사람들조차 맹목적으로 만들곤 한다.

그러나 그런 감정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역시 탐구심이다. 탐구심은 자신의 무지를 부끄러워하고, 인정하고,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학이사'에서 논하는 學과 思를 분리할 수 있게 된다. 學이란 탐구심이 없어도, 탐구심보다는 그저 공부를 수단삼는 마음만 있어도, 심지어 내가 하기 싫어도 남이 시켜서 할 수도 있는 일이다. 學은 思를 전제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식을 학습받으면서도,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學이 思를 전제하지 않는다면, 思는 學을 전제할까? 많은 경우에, 탐구하고 성찰하기를 즐기는 사람은 學을 즐기곤 한다. 그래서 마치 思가 學을 전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思하되 學이 뒷받침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런 예를 학창시절에 보곤 했다. 문예창작과에서 서로의 작품을 돌려 읽을때면, 서사에 치중한 나머지 사실관계가 어긋나 거슬리는 작품을 본 적도 있다. 직접 쓴 적도 있고. 실험실에서의 사건을 소재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각각의 실험자가 무슨 교수라도 되는 것마냥 연출돼서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소위 '고증'이라고 부르는, 작품의 사실적 전제가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특히 고등학생으로서 경험해보지 않은 직장, 사회, 다른 세계에서의 이야기를 다룰 때 그런 문제가 심했다.

그래서 우리는 소설을 쓸 때 우선 자신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볼 것을 권장받았다. 자신의 이야기여야 할 말이 생기고 독자를 납득시키기 쉽다는 점도 이유였지만, 괜히 자기가 모르는 이야기를 쓰려다간 우스워질 수가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나면 그 다음엔 가족의 얘기를 쓴

다. 그 다음엔 주변인의 얘기를, 그리고 나서 남의 얘기를 쓰면서 내가 겪어보지 않은 영역을 천천히 이해해가는 것이다.

고중 문제는 비단 습작생들의 문제일 뿐 아니라, 노련한 작가들도 하곤 하는 실수다. 개중에서도 심한 것들은 글 한복판에 툭 튀어나와서는 그 글 전체를 일종의 불량품으로 느껴지게 하기도 한다. 그래서 많은 작가들이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다큐멘터리를 보고, 관련 서적을 찾아가며 공부한다. 그런 부단한 노력이 있고서야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그럴듯한 창작물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는 말과 생각도 일종의 창작물로 볼 수 있음직하다. 따라서 말을 하고 생각을 함에 있어서, 그의 ‘고증’을 지키기 위해 부지런히 학습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럴듯하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음모론을 믿거나, 정치극단주의에 경도되거나, 망상에 사로잡히는 등. 그런 것들은 때로 정의로운 의도와 생각에서 비롯되지만 (예컨대, 정치극단주의자들 중 자신이 부정의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것이 초래하는 결과를 보면 學 없는 思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 수 있다. 생각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어 배움이란 일종의 의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思가 결여된 學이 허무하듯, 學이 결여된 思가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볼 때 공자가 말한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하다는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學과 思는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한 쌍이다. 훌륭한 思와 근면한 學이 동반될 때, 우리는 작품으로 치면 참 명작이라고 평할 만한 말과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런 말과 생각은 다른 이들에게 본받을만한 배움거리가 되고, 다른 이의 생각을 돕게 된다. 그래서 學而思, ‘배움 그리고 생각’이다.